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16년 10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개황 · 동향 제목 · 동향 개요 · 주간 보도일지 · 주요인물 동정

o 언어표현: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 단, 북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 중 우리식 표현이 없거나 북한의 고유명사인 경우 인용부호와 함께 북한 표현 그대로 사용

나. 대내 · 대남 · 대외 동향 주요 내용

o 언어표현·인용부호: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 정권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찬양 수식어는 삭제
ex)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 '김정은'

② 국내 주요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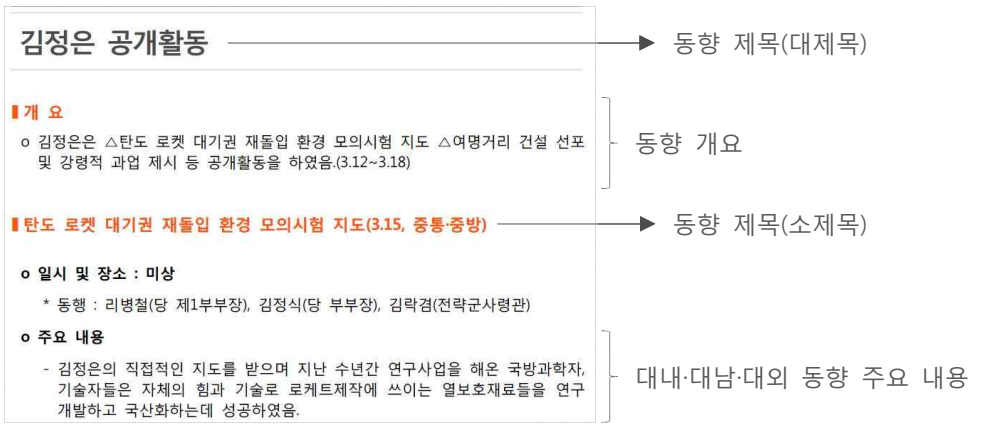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북한식 표현 설명

- 간단한 표기차이는 '괄호'로 보완 ex) 루출(누출), 페허(폐허)
-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o 띄어쓰기: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용

※ 대내·대남·대외 동향 페이지 구성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개황

대내동향

5 김정은 공개활동

5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현지지도

6 전국 육아원·애육원 등에 선물 전달

7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활동

8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감사 전달

9 「용악산 비누공장」 방문

10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2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지원(계속)

14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

15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17 「김일성 경기장」 준공

18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

20 北 총리,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 현지 시찰

21 北, 적십자 대회 진행

23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는 함경남도

24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진행

26 「평양 버섯공장」 준공

대남동향

27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 비난

29 「민화협」 대변인 담화

30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Contents

31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32 「여맹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33 北, 대통령 대북 발언 관련 비난

36 「국가 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37 「문학예술 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38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39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대변인 담화

대외동향

40 「외무성」 대변인 담화

42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45 「외무성」 대변인 성명

46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4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48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6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50 리종혁, 국제 의회동맹 제135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

52 **주요인물 동정**

65 **월간 보도일지**

109 **금월의 약사**

개황

대내동향

김정은 공개활동

o 김정은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10.7 중통·중방)

o 김정은은 전국 육아원·애육원 및 초·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솜옷·운동복·신발 등 선물을 전달하였음.(10.10 중방·평방)

o 김정은은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활동을 하였음.(10.18 중통)

o 김정은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에서 공적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감사를 전달하였음.(10.28, 중방)

o 김정은은 △「용악산 비누공장」 방문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등 공개활동을 하였음. (10.29~31, 중통)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지원(계속)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관련, △의료 봉사활동 진행 △모든 변전소와 송전선 복구 등 보도(10.3~10.5, 중통)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

o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식 진행 보도(중통)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o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7, 중방·평방)

「김일성 경기장」 준공

o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 보도(10.10, 중통)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

o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10.16, 중방)

北 총리,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 현지 시찰

o 北 총리,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 현지 시찰 보도(10.18, 중통)

北, 적십자 대회 진행

o 적십자 대회 진행 보도(10.19, 중통)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는 함경남도

o 함경남도,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 보도(10.22, 중통)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진행

o 10월 25일~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진행(10.27, 중통)

「평양 버섯공장」 준공

o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 보도(10.31, 중통)

대남동향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 비난

o 北,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와 '「조선 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7, 중통·중방)

「민화협」 대변인 담화

o 우리정부의 '진보세력 탄압' 주장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3, 중통·중방)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북한 보도 관련 일부 언론사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4, 중통)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o 우리 사회 내부 문제(대규모 파업 및 사드배치 철회 시위 등) 언급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4, 중통)

「여맹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우리 사회 내부 문제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5, 중통)

北, 대통령 대북 발언 관련 비난

o △「전국연합 근로단체」 성명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민족화해협의회」 공개 질문장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 국무회의 등에서의 대북 발언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7~19, 중통·중방·평방)

「국가 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o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제4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의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 비난(10.20, 중통·중방·평방)

「문학예술 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o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21, 중통·중방)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北 인권결의안(2007년)' 관련 '종북 논쟁' 비난(10.24, 중통·중방)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대변인 담화

o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 착공 관련 비난(10.26, 중통)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o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각국에 대한 '北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격하 요청' 등 대북제재 조치 관련 위협(10.6, 중통·중방)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o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영국 전투기들 파견 결정 관련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및 '참가 취소' 요구(10.14, 중통)

o 「외무성」 대변인, 前 UN 北인권 특별보고관의 '도덕적 제재' 발언에 대해 비난(10.20, 중통)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美·日·韓 해상 합동 군사훈련 비난 및 '핵 무력 강화' 강조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대북 발언 비난(10.22~25, 중통)

「외무성」 대변인 성명

o 「외무성」 대변인, 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김정은 핵 공격 능력 가진 순간 바로 죽을 것)에 대해 '오바마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10.15, 중통)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4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o 北 대표,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 연설(10.13)을 통해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10.17, 중통)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6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o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6위원회 회의(10.14) 연설을 통해 △'안보리'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명 수행 △미국의 '유엔사' 해체와 무력 철수 요구(10.20, 중통)

리종혁, 국제 의회동맹 제135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

o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제135차 총회(스위스 제네바, 10.25)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와 인권문제' 관련 비난(10.29, 중통)

대내동향

김정은 공개활동

▌개 요

o 김정은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10.7 중통·중방)

o 김정은은 전국 육아원·애육원 및 초·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솜옷·운동복·신발 등 선물을 전달하였음.(10.10 중방·평방)

o 김정은은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활동을 하였음.(10.18 중통)

o 김정은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에서 공적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감사를 전달하였음.(10.28, 중방)

o 김정은은 △「용악산 비누공장」 방문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 등 공개활동을 하였음. (10.29~31, 중통)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현지지도(10.7, 중통·중방)

o 일시 및 장소 : 평양시, 일시 미상

* 동행 : 오수용, 안정수, 조용원, 박명수

* 맞이 : 현지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o 김정은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영광과 행복으로 설레였음.

o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있는 김정은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1]하시고 공장을 개건하며 현대적인 생산 공정 등을 더 갖추어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었음.

- 김정은의 뜻을 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은 방대한 개건공사와 현대적인 생산 공정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생산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1) 료해 : 『북한어』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봄.

o 김정은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사랑이 어려 있는 공장,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쟈크 생산 공정, 멜라멘 수지 제품 생산 공정, 기념품 생산 공정, 제품 견본실 등을 돌아보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료해하였음.

o 김정은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에 현대적인 쟈크 생산 공정, 멜라멘 수지 제품 생산 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한 또 하나의 인민소비품 생산기지가 마련되였다고,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였음.

o 김정은은 경공업 공장들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경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개건하는 것과 함께 첨단 수준의 설비와 기술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 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음.

o 김정은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옳바른(올바른)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인정하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대해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준 김정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김정은의 현지말씀을 관철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음.

▌전국 육아원·애육원 등에 선물 전달(10.10, 중방·평방)

o 어버이의 사랑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는 김정은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솜옷, 운동복, 신발 등을 선물로 보냈음.

o 김정은이 온 나라의 곳곳에 원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고 철 따라 과일과 갖가지 식료품들, 생활용품들도 안겨준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은정을 베풀어주었음.

o 각지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 넘쳤음. 일꾼들과 보육원, 교양원 교원들은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했음.

o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은정은 이 세상 천만부모의 열과 정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후대사랑의 정화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겠다고 말했음.

o 친어버이의 다심한 손길이 어린 옷들과 신발, 양말과 함께 많은 꿀까지 안겨주며 원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자라도록 따뜻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는 양강도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에도 차 넘쳤음.

o 평성, 사리원, 청진육아원, 애육원 등의 보육원, 교양원들도 원아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 질새라 온갖 육친의 사랑을 안겨주는 당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새 세대들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이 있음을 다시금 확신했음.

o 각지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교양을 잘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키워갈 열의에 넘쳐 있었음.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활동(10.18, 중통)

o 일시 및 장소 : 평양시 문수지구, 일시 미상

* 동행 : 최룡해, 최태복, 김용수, 조용원, 리문곤, 마원춘

* 맞이 : 현지 해당 부문의 일군들

o 김정은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에 떠받들리워 류경 안과 종합병원이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희한하게 일떠섰음.[2)]

o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에서 공개활동을 하였음.

o 류경 안과 종합병원은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 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 봉사 기지임.

o 김정은은 지난 5월 새로 일떠서고 있는 류경 안과 종합병원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당 설립기념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병원 건설을 끝낼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음.

- 김정은의 언급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8건설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류경 안과 종합병원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안과 전문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o 김정은은 평양산원 유선종양 연구소, 류경 치과병원, 옥류 아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 되여 있는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류경 안과 종합병원까지 일떠섬

2) 일떠서다 : 『북한어』 ①(비유적으로) 건축물 따위가 건설되어 땅 위에 솟다 ②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다.

으로써 이곳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였음.

o 김정은은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의료 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 봉사활동을 잘할 데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 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데[3] 대한 문제 등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단위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경테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꾸릴 데 대한 지시를 주었음.

o 김정은은 류경 안과 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당풍으로 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이 일떠세운 병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과시하는 로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한 8건설국과 설계단위의 일군들, 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류경 안과 종합병원까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의료 봉사 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 있는 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o 김정은은 인민들이 류경 안과 종합병원이 문을 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데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운영 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 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음.

  -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의료 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을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있는 김정은에게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하면서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음.

o 김정은의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류경 안과 종합병원에서는 인민들이 격정에 겨워 부르는 로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세상이 들썩하게 울려퍼질 것임.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감사 전달(10.28, 중방)

o 김정은이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었음.

  - 김정은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받아 함북도 북부

3) 짜고들다 : 『북한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하여 미리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달려들다.

피해 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김동춘 소속부대, 여성철 소속부대, 권영학 소속부대의 장병들과 '922 건설 돌격대', 인민보안성 여단의 전투원들, 철도성의 일군들과 노동계급, 육해운성의 정무원들과 수송전사들, 돌격대원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일군들, 경흥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었음.

- 김정은이 보낸 감사를 받은 인민군 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200일 전투 결속의 열의에 넘쳐 있음.

▌「용악산 비누공장」 방문(10.29, 중통)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 평양시 문수지구

* 동행 : 황병서, 오수용, 안정수, 김용수, 서홍찬, 조용원, 마원춘

* 맞이 : 현지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군들

o 김정은이 새로 건설된 룡악산 비누공장을 현지지도 하였음.

o 룡악산 기슭에 일떠선 룡악산 비누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을 위해 마음 쓰는 김정은의 세심한 관심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비누 생산기지임.

- 김정은은 여러 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이 공장 건설을 중시하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력량을 투입해주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음.

- 지난 6월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은 몸소 공장 이름을 룡악산 비누공장으로 명명해주고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하면서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훌륭히 일떠세울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의 전투 명령을 결사 관철할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은 온 나라에 타 번지는 만리마속도 창조의 열풍 속에 치렬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룡악산 비누공장을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의 본보기, 표준, 세계적 수준의 비누공장으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o 김정은은 룡악산 비누공장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현대적인 공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였다고,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음.

o 김정은은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 김정은은 룡악산 비누공장을 잘 건설했다고 하면서 과학적인 기술 공정 설계에 기초하여 건축 면적과 생산 공간을 조성하고 설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 안팎을 흠잡을 데 없이 꾸려놓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였음.

-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샴푸, 린스, 그릇 세척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고 하면서 볼수록 흐뭇하다고 하였음.

o 김정은은 룡악산 비누공장에서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년차별로 늘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 데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o 김정은은 군인 건설자들이 당 창건 기념일까지 공장 건설을 끝낼 데 대한 전투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룡악산 비누공장 건설에서 당의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위전의 제일 기수, 돌격대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는 사회주의 조선의 전진의 숨결,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

o 김정은은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 빨리 세상에 부럼 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부문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김정은은 룡악산 비누공장은 우리 당이 깊이 관심하는 공장,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공장이라고 하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 룡악산 비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와 인민 사랑의 뜨거운 자욱을 새긴 김정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생산과 제품 질 제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김정은의 현지 언급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음.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0.30, 중통)

o 일시 및 장소 : 일시 미상, 금수산궁전 광장(평양시 대성구역)

* 참가 : 최룡해, 김기남, 리일환, 주영길

o 김정은이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김정은은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 중앙 결사옹위, 충실성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다 바치였으며 동맹 조직 강화에 적극 기여한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음.

o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로동 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고 직업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 굳게 믿고

내세우시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는 김정은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음.

o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이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핵심이 되고 선도자가 되여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음.

o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이 보내준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직업동맹을 영원히 수령의 직업동맹, 당의 직업동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새 시대 만리마 진군에로 총궐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데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음.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복구 지원(계속)

▌개 요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 관련, △의료 봉사활동 진행 △모든 변전소와 송전선 복구 등 보도(10.3~10.5, 중통)

▌의료 봉사활동 진행(10.3, 중통)

o 조선(북한)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에서 의료 봉사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o 김경철(보건성 국장)은 중앙의 치료예방 기관들과 함경북도 안의 보건 기관들에서 수백 명의 의료일군이 현장 치료대 성원으로 파견되였다고 말하였음.

- 예방약, 구급약, 주사기, 수술기구를 비롯한 400여 종에 수천만 점의 의료품들이 긴급 수송되였음.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 피해 지역 주민 17만여 명에 대한 건강 검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음.
- 피해가 심한 무산군과 회령시에 파견된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의학대학병원, 김만유 병원, 평양산원 의료 일군들은 위생방역 사업과 일반 질병치료, 구급수술에 전심하고 있음.
- 도·시·군 보건 기관들에서 파견된 의료 일군들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료 예방 사업에서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음.

▌모든 변전소와 송전선 복구(10.5, 중통)

o 함경북도 북부 피해지역의 변전소들과 650여리 구간의 송전선들이 모두 복구되였음.

- 전주 복구는 95% 계선에서, 배전선 공사는 마감단계에 들어섰음.
- 전력공업성과 함경북도·함경남도·량강도 송배전부의 능력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이 북부지역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 전력계통 복구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 톤의 강재와 전선, 애자와 단로기, 변성기들이 긴급 수송되여 피해 복구의 첫 시작에서부터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음.
- 함경북도 송배전부의 로동자·기술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8,000㎥의 토량을 처리하고 파손된 각종 설비들을 복구해 나갔음.
- 함경남도와 량강도 송배전부의 로동계급은 수천 개의 전주공사 과제를 짧은 기일 안에 해제끼는데[4] 기여하였음.

- 9월 27일까지 무산군과 회령시, 연사군 등 피해 지역의 변전소들이 복구되여 북부전선의 전 지역에 대한 송전계통이 모두 정상가동하게 되였음.
- 전력 공업부문 로동계급이 거둔 성과로 하여 피해 복구공사가 힘 있게 추진되고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며 무산광산 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음.

4) 해제끼다 : ①해치우다 ②『북한어』 어떤 일을 일정한 결말을 맺게 다 해 버리다.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

▌개 요

o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식 진행 보도(중통)

▌주요내용

o 일자 : 2016. 10. 6.(목)

* 준공사 : 김능오(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 곽범기(조선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관계부문,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 일군들·종업원들

o 홍건도 간석지 1단계 건설이 완공되였음.

- 서해 기슭에 펼쳐진 대자연 개조의 창조물은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정신과 사생결단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조국번영의 만년재부임.

o 김능오는 준공사에서 날바다[5] 한가운데 수십리 제방이 뻗어 나가고 4,500정보의 간석지를 강성조선의 재부로 떠올린 오늘의 현실은 수령들과 김정은의 령도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음.

- 그는 기업소의 건설자들이 홍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 신화를 창조하여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 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5) 날바다 : 『북한어』 거칠 것 없이 아득히 넓은 바다.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개 요

o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7, 중방·평방)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2016. 10. 7.(금), 인민문화궁전

* 주석단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무력기관·내각·근로단체·성 중앙기관 일꾼들, 군대와 사회의 모범적인 일꾼들, 공로자들

* 참가자 : 평양시 안의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무력·정권기관·사회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기관·공장·기업소 일꾼들, 노력혁신자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o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사회를 했음.

o 지금부터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시작하겠음.

o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하겠음.

-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은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 사변이었음.

- 김정일은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을 이끌어 당 건설의 모범을 창조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변혁을 안아왔음.

-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이 끝없이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하여 준 우리 당의 최고 뇌수, 사상 이론의 거장임.

- 김정일이 어버이 수령님의 총대 중시 사상을 선군 혁명 사상, 선군 정치 이론으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론을 제시한 것은 우리

당이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게 한 특출한 공적으로 됨.

- 장군님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어길 수 없는 원칙,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혁명 령도의 전 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음.

- 언제나 인민행 열차를 타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장군님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투쟁 방식을 체질화 한 정신력의 강자로 억세게 자라났으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는 끊임없는 앙양[6]이 일어나게 되었음.

- 우리의 국방공업을 자체의 힘으로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자립적 국방공업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운 것은 장군님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룩한 업적중의 업적임.

- 김정일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이끄시어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전진하는 6.15 통일시대를 펼치었으며 정력적인 대외 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를 비상히 높이고 세계의 자주화위업 실현에 역사적 공헌을 하였음.

- 김정일이 이끌어 온 당 건설 위업은 김정은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음.

-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하였음.

- 김정은이 있기에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서의 장군님의 권위는 절대불변이며 장군님의 혁명령도사, 주체적 당 건설 력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흐르게 되리라는 것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철석의 신념임.

-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여 조국의 북변 땅에서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하겠음.

-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인 김정일이 밝혀준 백승의 지침이 있고 김정은의 지도가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함.

o 이상으로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19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끝마치겠음.

6) 앙양: ①정신이나 사기 따위를 드높이고 북돋움. ②『북한어』흐름이나 과정이 드높아지거나 활발하여짐.

「김일성 경기장」 준공

▌개 요

o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 보도(10.10, 중통)

▌주요내용

o 일자 : 2016. 10. 9.(일)

* 준공사 : 최룡해(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 부위원장)

* 참가자 :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 등과 조선로동당 중앙위 일군들, 국가체육지도위 성원들, 경기장 개건보수 공사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체육부문과 경기장의 일군·체육인·종업원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 청년학생들

o 평양의 풍치 수려한 모란봉 기슭에 있는 「김일성 경기장」이 웅장·화려하게 개건되였음.

- 경기장에는 4만여 석의 관람석과 새로운 인공잔디를 입힌 축구장, 선수 입장홀 그리고 국제축구련맹 사무실과 심판원실, 감독실, 기자 회견실, 약물 검사실, 치료실, 과학기술 보급실을 비롯한 현대적인 체육 및 문화후생 시설들과 봉사망들까지 갖추어져 있음.

- 경기장에서는 국가적인 정치문화 행사와 국제·국내 체육경기를 원만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다채로운 체육활동 및 문화정서 생활도 마음껏 누릴 수 있음.

- 연설자는 조선로동당의 체육 강국 건설구상에 따라 개건된 김일성 경기장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인민의 체육전당이라고 언급하였음.

- 김일성 경기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관리운영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당의 사랑이 체육인들과 근로자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7]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음.

7) 가닿다 : 『북한어』 ①일정한 대상에게 몫으로 배당되다 ②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거나 올라서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

▌개 요

o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8]」 결성 90주년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10.16, 중방)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2016. 10. 16.(일), 인민문화궁전

* 주석단 :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무력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 기관 일꾼들, 당의 선군혁명 위업 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

* 참가자 : 평양시 안의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무력기관·성·중앙 기관 일꾼들, 평양 시내 기관·공장·기업소 일꾼들, 노력 혁신자들, 혁명 열사 유가족들

o 김일성이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90돌 중앙보고대회가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음.

-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가 사회를 했음.

o 지금부터 김일성이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90돌 중앙보고대회를 시작하겠음.

o 보고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하겠음.

-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으로부터 90성상에 이르는 조선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ㅌ.ㄷ》의 전통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온 긍지 높은 연대기임.

-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 혁명 위업은 오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 높이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 대오의 위력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 단결로 천백배로 장성 강화되었음.

- 《ㅌ.ㄷ》의 결성은 우리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 당 건설 위업의 출발점으로, 역사적 뿌리로 되었음.

8) 김일성이 1926년 10월 17일 만주 화전현에서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했다는 혁명조직이며 <ㅌ·ㄷ>라는 약칭으로도 쓰임.

- 《ㅌ.ㄷ》의 강령과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지침으로 되었고 《ㅌ.ㄷ》의 반제 투쟁정신은 우리 당 선군정치의 초석으로 되었으며 《ㅌ.ㄷ》에서 시작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의 전통, 동지애의 전통은 우리 당의 무궁무진한 위력의 원천으로 되었음.

- 《ㅌ.ㄷ》의 기치 밑에 억세게 전진해 온 조선 혁명의 장구한 노정은 주체의 당 건설 위업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되고 우리 당이 조선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강화 발전되어 온 영광스러운 역사임.

-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의 당 건설과 선군위업은 오늘 김정은의 영도 밑에 위대한 계승과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김정은이 우리 당의 지도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ㅌ.ㄷ》의 이념을 철저히 실현하고 백두의 대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필승의 기치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됨.

-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로와 근본 원칙이 밝혀져 있고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간직하여야 할 사상 정신적 재부가 집대성되어 있는 위대한 《ㅌ.ㄷ》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는 길에 백전백승의 길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9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과 건설과 혁명발전의 역사적 총화임.

-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삶과 투쟁의 표대로 추켜들고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열혈의 동지, 의리의 인간이 되어야 하겠음.

- 위대한 당의 백전백승의 영도 따라 《ㅌ.ㄷ》의 전통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임.

- 모두 다 김정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 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함.

o 이상으로 김일성이 주체형의 혁명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한 9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끝마치겠음.

北 총리,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 현지 시찰

▌개 요

o 北 총리,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 현지 시찰 보도(10.18, 중통)

▌주요내용

o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함경북도 회령시, 연사군, 무산군의 피해 복구 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o 총리는 전투장들을 돌아보면서 김정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받아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조국의 북변 땅에 사회주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워 가는 건설자들의 로력적 성과를 적극 고무해 주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북부 피해지역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대책들이 토의 되였음.
- 한편 총리는 김책 제철 련합기업소와 청진 제강소, 청진항을 돌아보면서 북부 전역에 보내줄 철강재 생산을 늘이며 세멘트를 비롯한 피해복구 자재수송을 다그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北, 적십자 대회 진행

▌개 요

o 적십자 대회[9] 진행 보도(10.19, 중통)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 2016. 10. 18.(화)~19.(수), 인민문화궁전

* 축하 연설자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 보고자 : 리충복(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 참가자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들, 중앙과 지방의 적십자 일군들, 자원 봉사자들, 청소년 적십자 회원들

* 초대자 :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과 단마르크(덴마크), 핀란드, 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조선(북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단 성원들

o 대회에서는 2012년 대회이후 2016년까지의 전략계획 목표와 년간 활동계획들의 리행정형이 총화되고 적십자회의 인도주의 활동을 보다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 되였음.

o 연설자는 축하연설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령도 밑에 적십자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온 데 대하여 언급하였음.

- 그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적십자회의 숭고한 인도주의 활동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대회의 성과를 바란다고 말하였음.

o 보리스 미쉘(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과 크리스토퍼 스태니스(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가 적십자 및 적반월 운동의 근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협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의사를 표명하였음.

o 대회에서는 보고가 있었음.

- 보고자는 총결기간 적십자회가 변화된 환경과 조건, 적십자 방조대상들의 수요에 맞게 모든 적십자 일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책임과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지도적

9) 북한 적십자대회는 4년마다 개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는 수령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적십자회를 인도주의 단체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이어 토론들이 있었음.

-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예산집행 정형이 총화되였으며 규약이 수정 되였음.

- 또한 2020년까지의 전략 계획과 예산이 토의되였으며 새 지도기관 성원들이 선거 되였음.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는 함경남도

▌개 요

o 함경남도,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 보도(10.22, 중통)

▌주요내용

o 조선(북한)에서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가 이 사업의 선두에 서 있음.

o 김삼영(도 국토환경 보호관리국 국장)은 도에서 국가적 의의가 큰 단천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로 폭 확장공사로부터 국토관리사업을 의의 있게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10만여 ㎥의 성토공사와 44만여 ㎥의 암반 까내기 공사를 진행하여 40km 구간의 도로 폭을 성과적으로 확장하였음.
- 마천령 굴 공사장에서는 수백 m에 달하는 환기 갱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 있음.
- 단천지구 새 도로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적극 진행하고 있음.
- 단천시에서는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하고 10여 개소의 다리건설과 강하천 제방보수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음.
- 북청군에서는 도질령과 거산령에 수백 개의 안전보호벽들을 새로 세우고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였음.
- 정평군에서도 큰물로 파괴된 살림집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건설하는데 력량을 집중하면서 강하천 정리를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 요덕군에서는 여러 도로 구간들의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강하천 정리, 제방성토공사와 장석공사, 강바닥 파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힘 있게 벌려 국토관리사업에서 앞서나가고 있음.
- 도에서는 300여 세대의 회상지구 과학자살림집 건설과 도 인민병원 개건공사, 마전유원지 2단계 개건공사, 도 과학기술도서관, 전쟁로병 보양소 건설을 비롯하여 10여개 대상의 공사들도 립체적으로 벌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진행

▌개 요

o 10월 25일~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 직업총동맹」[10] 제7차 대회 진행 (10.27, 중통)

▌주요내용

o 일자 및 장소: 2016. 10. 25(화)~26(수), 인민문화궁전

* 참가자 : 각 도 직맹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 당·행정·무력기관 일군들과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동맹 대표단

o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가 25일과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음.

- 대회에서는 조선 직업총동맹 제6차 대회 이후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모든 직맹 조직들이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음.

o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음.

1.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 직업총동맹 규약 개정에 대하여
4.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o 대회에서는 김정은이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 조직들의 과업》이 전달되였음.

o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로조단체 및 국제기구들,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 온데 대하여 소개되였음.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로동본부에서 축전을 보내여 온데 대하여 소개되였음.

o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주영길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음.

10) 「조선 직업총동맹」 : 노동당원이 아닌 30세 이상의 모든 직장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로 구성.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사상교양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 유지와 생산과 건설 동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보고자는 김정은이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여 김일성-김정일 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조선 직업총동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직업동맹이 수령의 직업동맹, 당의 직업동맹으로 더욱 강화되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혁명적 대진군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온 긍지 높은 나날이라는데 대해 언급하였음.
- 보고자는 조선 직업총동맹이 김정은의 서한을 높이 받들고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데 대해 말하였음.

o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동맹 대표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음.

o 이어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음.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음.

o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신봉렬 직총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음.

o 셋째 의정이 토의되였음. 조선 직업총동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음.

o 넷째 의정을 토의하였음. 조선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음.

o 직총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 내용이 발표되였음.

-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영길, 부위원장으로 최수동, 봉원익, 한우팔, 김동선, 최봉만, 림창복, 리철준, 김성수가 선거되였음.
- 직총 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직총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자신문》주필이 임명되였음.
- 직총 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직총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결과가 발표되였음.

「평양 버섯공장」 준공

▌개 요

o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 보도(10.31, 중통)

▌주요내용

o 일자 : 2016. 10. 31.(월)

* 준공사 : 박봉주(내각 총리)

* 참가자 : 박봉주, 곽범기, 로두철, 관계부문 일군들 등

o 현대적인 버섯 생산기지가 평양에 일떠섰음.

- 평양 버섯공장은 통합 생산체계와 과학기술 보급체계가 완벽하게 구축 되여 있는 로동당 시대의 창조물이며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귀중한 재부임.
- 버섯 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갖춘 생산능력이 큰 평양 버섯공장이 버섯재배 공업화의 표준단위로 일떠섬으로써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음.
- 박봉주는 연설에서 평양 버섯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과 령도의 결정체라고 말하였음.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 비난

▌개 요

o 北,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와 '「조선 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성주 골프장 사드배치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7, 중통·중방)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0.7, 중통·중방)

o 박OO년은 남조선 각 계 각 층의 항의와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끝내 원불교의 《성지》가 있는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음.

o 조선 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박OO 역적패당의 무모한 침탈망동을 원불교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후안무치한 종교말살 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 북반부 전체 불교도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재앙 덩어리, 살인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면 원불교의 《성지》가 미군의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유사시에 렬강들에 의해 핵전쟁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o 천하 악귀들의 《싸드》 배치 망동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량자에 의해 오늘은 원불교의 《성지》가 날아나고 래일은 종교적 신앙 그 자체마저 완전히 짓밟히게 되며 겨레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 조국강토가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핵전쟁 마당으로 화하게 될 것임.

o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이 화택중생을 구제하고 화택삼계를 정토로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 발원하고 실천할 때임.

o 원불교를 비롯한 남조선 종교계가 시대 악에 맞서 과감히 떨쳐나선 것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들이 해야 할 너무도 응당한 본분이고 자비행임.

o 조선 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성지》 수호를 위한 원불교인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를 보내면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재앙거리인 박OO 미친년의 《싸드》 배치를 결단코 막아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o 신성한 종교 《성지》를 모독하고 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사악한 무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임.

▌「조선 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10.7, 중통·중방)

o 최근 박OO년이 원불교의 《성지》 주변에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음.

o 조선 종교인협의회는 동족대결에 미쳐 돌아가면서 신성한 종교 《성지》까지 미국에 섬겨 바치는 박OO 년의 묵과할 수 없는 악행을 공화국의 전체 종교인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저주규탄하면서 남조선 종교인들과 각 계층의 《싸드》 반대, 《성지》 수호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냄.

o 박OO년이 《싸드》 배치책동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보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

o 조선 종교인협의회는 원불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종교인들이 《성지》 수호의 함성 높이 《싸드》 반대투쟁을 계속 과감히 벌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함.

「민화협」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정부의 '진보세력 탄압' 주장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3, 중통·중방)

▌주요 내용

o 민족화해협의회는 괴뢰패당의 야수적인 탄압소동을 각 계층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존엄, 생존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말살 행위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험계선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반인민적 악정에는 민심의 규탄과 반항이 따르기 마련임.

o 여기에 역적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특대형 부정부패사건들이 련이어 터져 나와 사회전반이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으로 화하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민적, 반민족적인 만고죄악을 규탄하며 정의를 지향하고 생존권을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에 파쇼 폭압의 칼날을 서슴없이 들이대고 있는 것임.

o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고 불의가 정의를 매도하는 중세기적 암흑천지가 바로 청와대 악녀에 의해 《유신》 독재가 부활되는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임.

o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적패당의 파쇼 탄압이 《종북 세력, 불순 세력 척결》의 간판 밑에 감행되고 있는 것임.

o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 계층이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가슴 섬뜩한 종북 선전 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님.

o 괴뢰패당이 이처럼 이미 그 기만적 정체가 드러날 대로 드러난 《종북》 광란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더 이상 출로가 없기 때문임.

o 박OO 패당이 단말마적인 파쇼 광란에 매달릴수록 민심의 더 큰 분노와 항거만을 불러오게 될 것임.

o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극악한 파쇼 무리,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인 박OO 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함.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북한 보도 관련 일부 언론사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4, 중통)

▌주요 내용

o 지금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은 박OO 역적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 책동에 추종하여 터무니없는 모략여론들을 내돌리며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하는 괴뢰 보수언론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음.

o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적대세력들의 검질긴 제재와 봉쇄, 압살책동을 보란 듯이 쳐내 깔리며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로 질풍노도쳐 내달리고 있음.

o 그러나 괴뢰《련합뉴스》, 《KBS》방송, 《동아일보》를 비롯한 어용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에는 애써 눈을 감고 우리를 헐뜯는 날조 자료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출처도, 실체도 없는 그 무슨 《현지소식통》이니, 《교민소식통》이니 하는 것들을 내들고 모략여론 류포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음.

o 이것은 괴뢰보수 언론들이야말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미친 박OO년의 철저한 하수인, 사환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뿐임.

o 북남관계가 오늘에 와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이 극도에 이른 데는 청와대 대결악녀의 장단에 춤을 추는 보수언론들에게도 책임이 있음.

o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앞장서고 있는 《련합뉴스》와 《KBS》방송, 《동아일보》 등 괴뢰언론사들에 다시 한 번 엄숙히 경고함.

o 지금의 험악한 정세 속에서 박OO년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동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괴뢰보수 언론사와 악질기자 나부랭이들에게는 래일이 없으며 앞으로 반드시 계산 되여 쓰디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

o 언론은 정의와 진실의 대변자, 분렬된 우리 민족을 통일에로 선도하는 시대의 선각자가 되여야 함.

o 남조선의 모든 언론인들은 력사와 시대 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허위와 날조로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가는 사이비 언론들의 가증스러운 추태를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하며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반 박OO 투쟁에 용약 떨쳐나서야 할 것임.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 사회 내부 문제(대규모 파업 및 사드배치 철회 시위 등) 언급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4, 중통)

▌주요 내용

o 지금 온 남조선 땅이 박OO 패당의 극악한 반역통치를 끝장내려는 각 계층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음.

o 이것은 남조선을 민주와 인권, 민생의 불모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는 박OO 패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임.

o 전대미문의 반역통치로 남조선 인민들을 파멸의 나락에로 떠밀고도 모자라 핵전쟁의 기폭제나 다름없는 《싸드》의 배치를 기도하는 박OO 패당의 발악적 책동은 남조선은 물론 전 조선반도를 외세의 핵 전쟁터로 만들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망동으로서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음.

o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만고죄악을 덧쌓으며 온 남녘땅을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의 황량한 무덤, 핵전쟁의 발원지로 전락시킨 가장 추악한 반역의 무리가 바로 박OO 패당임.

o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이 박OO년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역적패당의 반인민적 악정과 사대매국책동, 극악한 동족대결과 북침 핵전쟁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궐기해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OO 패당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스스로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설 대신 《내부혼란》이니, 《불법행위》니 뭐니 하면서 평화적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더욱 독을 쓰며 파쇼광기를 부리고 있음.

o 박OO 패당이야말로 력대 독재자들을 무색케 하는 극악한 파쇼광, 희세의 역적무리들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만가지 재앙을 몰아오는 화근중의 화근,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들임.

o 남조선의 각 계 각층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박OO 역적패당을 쓸어버리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반드시 안아 와야 할 것임.

o 박OO 패당은 대세와 민심의 요구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파쇼 탄압을 당장 중지하며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

「여맹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우리 사회 내부 문제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5, 중통)

▌주요내용

o 얼마 전 괴뢰 국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남조선에서 12살 미만의 어린이 197명이 살해당한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 학대 건수가 총 4만 999건에 달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그 수가 1만 1,715건을 기록하였다고 함.

- 이것은 2011년에 6,058건 이였던 어린이 학대행위가 박OO년이 집권한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o 남조선에서 빚어지는 세상에 둘도 없을 야만적인 어린이 학대행위는 썩을 대로 썩고 병들대로 병든 남조선의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 귀결임.

o 더우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지도 못한 박OO년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서 《책임보육 체계》니, 《무상보육 확대》니 뭐니 하고 허튼 나발을 불어댔지만 오히려 어린이 학대가 더욱더 우심해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 현실임.

o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OO 패당은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는 덮어두고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있음.

o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과 가정적, 사회적 학대 속에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가는 남조선 어린이들의 판이한 두 모습은 민족의 장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남조선의 전체 어머니들과 녀성들은 모든 불행의 화근인 박OO년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천하 악녀를 지체 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여 더러운 시궁창에 처박아 넣어야 할 것임.

北, 대통령 대북 발언 관련 비난

▌개 요

o △「전국연합 근로단체」 성명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민족화해협의회」 공개 질문장을 통해 우리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식, 국무회의 등에서의 대북 발언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10.17~19, 중통·중방·평방)

▌「전국연합 근로단체」 성명(10.17, 중통·중방·평방)

o 최근 역도는 《국군의 날 기념식》이니, 《국무회의》니 하는데 매일같이 더러운 상통을 내밀고 《폭압 정치》요, 《체제 균렬》이요 하면서 마치 우리 내부에서 그 무슨 일이나 난 것처럼 황당무계한 악설을 늘어놓고 있음.

o 그런가 하면 《생계형 탈북으로부터 이민형 탈북》이니, 《엘리트층의 탈북》이니 뭐니 하면서 《탈북자》들이 무리로 남조선으로 쓸어들 것처럼 수선을 떨고 있음.

o 전국련합 근로단체는 박OO년의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을 우리 인민의 삶을 모독하고 우리의 따스한 요람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파괴하려는 반인륜적 범죄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 허망한 《흡수통일》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정신병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우리의 로동 계급과 농민, 청년학생과 녀성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함.

o 이번에 박OO 역도가 공공연히 《탈북》을 선동한 것 은 이때까지 감행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치 떨리는 유인랍치 만행의 주범이 다름 아닌 제 년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음.

o 남조선 인민들의 꿈과 미래를 무참히 짓밟고 부패무능과 사리사욕으로 민심의 저주를 받고 있는 박OO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남조선을 그 무슨 《자유의 터전》이라고 요사를 떨고 있지만 그러한 악취 나는 곳에는 개도 더러워 가지 않을 것이며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개보다 못한 추물들일 것임.

o 최후 발악하는 박OO가 미친증이 도수를 넘어 《흡수통일》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이상 우리 근로대중은 썩어빠진 남조선의 반동적 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역도의 명줄을 끊어놓기 위한 전인민적성전에 돌입한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함.

o 우리 로동 계급과 농민, 청년들과 녀성들은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추악한 인간쓰레기가 되여 동족대결과 반인륜적 악행에 환장한 박OO 역도에게 가장 준엄한 철추를 내릴 것이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 값을 가장 처참하게 치르게 하고야 말 것임.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18, 중통·중방)

o 지난 1일 그 무슨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 데서 우리 주민들의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을 공공연히 불어댔던 박OO 역도는 그 후에도 입만 벌리면 《북붕괴》니, 《체제 균열》이니 하는 얼빠진 헛소리를 마구 늘어놓아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음.

- 지난 16일에도 역도는 《북 도발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북이 민족의 래일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악담을 쥐쳐댐.

o 우리의 핵 위력에 홍찌를 갈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악의 통치위기까지 겹친 박OO 역도는 지금 안팎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으며 특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아 바빠날대로 바빠난[11] 상태에 있음.

-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벙거지를 쓰고 초보적인 체면도 없이 인간쓰레기들과 한 짝이 되여 매일같이 《탈북》 나발만 정신없이 불어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임.

o 박OO 역도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공포정치》요 뭐요 하고 외곡(왜곡)날조하고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인권유린》으로 매도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음.

o 그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 저들의 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을 어떻게 하나 지탱해 보려는 것이며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반미, 반전, 반《정부》기운을 억누르고 극심한 통치위기를 해소해보려는데 있음.

o 역도가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는 개나발을 불어대도 진실은 가리울 수 없으며 가리워지지도 않음.

o 그러나 박OO는 사유능력이나 분별력이 전혀 없는 말기증세의 대결 정신병자임.

o 제 집안을 수습할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하여 행방 없이 동족을 물어뜯는데 미쳐 돌아가는 청와대 악녀는 썩은 호박 제 꼭지에 떨어지듯 제풀에 자빠져 관 속에 들어가게 되여 있음.

o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대결 미치광이의 얼빠진 넉두리는 가장 비참한 장송곡으로 끝나게 될 것임.

▌「민족화해협의회」 공개 질문장(10.19, 중방·중통)

o 최근 안팎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려 운명이 경각에 달한 박OO 역도가 통제 불능의 동족대결 발작증을 일으키고 있음.

o 역도년은 미국상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극구 추종하여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마구 쥐쳐대는가 하면 감히 《붕괴징후》니, 《자멸》이니 하는

11) 바빠나다 : 『북한어』 ①몹시 바쁘게 되다 ②형편이 딱하게 되어 몹시 거북하거나 급하게 되다.

모략 나발을 불어대며《탈북》을 선동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o 민족화해협의회는 박OO가 저승길을 가더라도 자기의 무분별한 동족대결 망동이 얼마나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이며 그 대가가 어떤 값비싸고 참혹한 것인지 똑똑히 알고 가게하기 위하여 이 공개 질문장을 보냄.

1. 지금까지 광고해댄《신뢰 프로세스》니,《통일대박》이니 하는 것들이 미국에 추종하여《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기만극 이였다는 것을 이제는 내놓고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2. 미국을 믿고《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은 물론 남조선 전역이 불바다, 재더미가 되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3. 공공연한《탈북》선동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도전하는 천하 무도한 유괴랍치 범죄, 반인륜 죄악이라는 것을 과연 모른단 말인가.

4. 집권기간 온갖 거짓과 기만, 모략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터무니없이 외곡(왜곡)하고 헐뜯으며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한데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는가.

5. 우리의 눈부신 현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열어 놓을 테니 우리에게 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6. 우리 천만군민의 존엄과 긍지를 무엄하게 헐뜯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악랄하게 모독하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인하고 우리 공화국 법정에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o 박OO는 멸적의 의지와 증오에 불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 년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최후징벌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함.

o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망동에 미쳐 돌아가는 박OO 역도는 력사와 민족의 가장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국가 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

▌개 요

o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제4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의 북한 '위성발사' 관련 발언 비난(10.20, 중통·중방·평방)

▌주요내용

o 우주에로 뻗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에 얼혼이 나간 박OO 역적패당의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위성 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추태를 부리고 있어 국제적 비난과 망신거리로 되고 있음.

- 얼마 전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놀아댄 괴뢰패당의 대결난동이 그 대표적 실례임.

o 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위성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임.

o 우리의 위성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결의위반이니 위법이니 뭐니 하고 걸고든 괴뢰패당의 망동은 무지무도한 생억지에 불과함.

o 더욱이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미국의 식민지 괴뢰 따위가 감히 자주로 존엄높고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걸고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겹기 그지없음.

o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문제로 된다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주에 위성을 솟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이며 남의 힘을 빌어 얼치기 위성을 발사한 괴뢰들 역시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임.

o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나머지 졸개들을 국제무대에 까지 내몰아 깡패같은 대결난동을 부리게 한 박OO 역도야말로 민족의 망신이고 수치덩어리임.

o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미국 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 잔명을 부지하는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미친개처럼 짖어대도 우리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나갈 것임.

o 박OO 역적패당은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가로막아 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더 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만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함.

「문학예술 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개 요

o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 (10.21,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최근 남조선에서 박OO 일당이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탄압할 목적 밑에 요시찰 명단을 작성하여 내리먹인[12] 사실이 공개되여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o 박OO년과 그 일당은 이 요시찰 명단을 괴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내여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위험인물》로 락인하고 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치검열》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을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그들 모두를 박해하였다고 함.

o 이것은 전대미문의 암흑정치가 광란하던 《유신》 독재시대에나 있을 수 있었던 불법무법의 탄압행위로서 남조선 사회에 《유신》의 망령을 또다시 불러온 박OO년의 포악한 정보 정치, 파쇼 폭압통치의 일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함.

o 집권자들이 선거에서 저들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후보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항시적으로 감시, 박해, 탄압하는 이런 불법 무법한 야만의 사회가 바로 오늘의 남조선 사회임.

o 이번에 드러난 문예인들에 대한 박OO년의 무차별적이고 불법 무도한 탄압행위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정부》기운을 가로막고 파쇼무리들의 장기집권을 이루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음.

o 날로 암흑천지로 굴러 떨어지는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박OO년과 그 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문예인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활동이 보장될 수 없으며 그토록 갈망하는 사회적진보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o 남조선의 량심적인 문예인들은 파쇼폭압에 굴함 없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박OO 역적무리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며 악질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것임.

12) 내리먹이다 : 『북한어』 창이나 깔 따위로 내리 찌르거나 내리치다.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北 인권결의안(2007년)' 관련 '종북 논쟁' 비난(10.24,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최근 《새누리당》을 비롯한 괴뢰보수 패거리들은 이전에 외교통상부 장관직에 있던 자가 쓴 책을 통해 2007년 11월 로무현 《정부》가 《북의 의견》에 따라 유엔에서의 《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느니, 당시 관계자들의 《대북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느니, 검찰 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광란적인 《종북 몰이》 소동을 벌리고 있음.

o 명백히 말하건대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그 무슨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립장을 알려온 적도 없음.

o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이전 로무현 《정부》가 우리와 《내통》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며 야당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대고 있는 것은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서 저들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박OO 역도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에 쏠린 여론의 화살을 딴 데로 돌려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또 하나의 비렬한 모략소동에 지나지 않음.

o 이번 소동을 통하여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는 반통일 집단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냈으며 미국과 박OO 패당이 떠드는 《북 인권 문제》가 순전히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려는 흉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실증되였음.

o 청와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새누리당》의 얼간망둥이들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종북》 모략극에 열을 올릴수록 저들의 구린내 나는 과거사만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임.

o 괴뢰보수 패당이 구태의연한 《색갈론》과 《종북》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자멸행위로 될 뿐임.

o 남조선의 각 계층은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허위날조와 추악한 모략을 일삼으며 리성을 잃고 발악하는 괴뢰보수 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임.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대변인 담화

▌개 요

o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 착공 관련 비난(10.26, 중통)

▌주요내용

o 지금 온 민족과 세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여있는 북남관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o 바로 이러한 때에 괴뢰들은 얼마 전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그 무슨 《6.25 전시 랍북자 기념관》 착공식이라는 것을 벌려놓았음.

o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극히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의거 입북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임.

- 괴뢰들이 《전시 랍북자》라고 날조해대는 사람들로 말하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국과 리승만 괴뢰도당의 북침전쟁 도발과 식민지 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참된 진리의 길,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공화국 북반부로 자진하여 들어온 사람들임.

o 사실 지금까지 괴뢰들은 우리와 마주앉는 공개석상에서는 《전시 랍북자》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OO 패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정의감으로부터 자진하여 의거입북한 사람들을 한사코 《전시 랍북자》로 날조하면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악용하고 있는 것임.

o 《랍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치 떨리는 랍치 주범, 인권유린의 왕초는 다름 아닌 괴뢰패당임.

o 특히 박OO 패당이 집권하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린랍치 만행은 절정에 달하고 있음.

o 이런 랍치 만행의 흉악범들이 《인륜》이니, 《천륜》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그 무슨 《전시 랍북자 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 수 없음.

o 역적 패당이 《전시 랍북자》요 뭐요 하며 계속 떠들어대 봤자 저들의 모략적이며 대결적인 정체와 반인륜적 범죄만을 더욱 드러낼 뿐임.

o 우리는 있지도 않는 《전시 랍북자》 문제를 날조하여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광분하는 박OO 패당의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의거 입북자들을 비롯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릴 것임.

대외동향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각국에 대한 '北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격하 요청' 등 대북제재 조치 관련 위협(10.6, 중통·중방)

▌주요내용

o 최근 오바마 패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이 극한점에 달하고 있음.

- 임기가 다 된 오바마 패는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광분하고 있음.

o 이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구상을 제창한 것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타먹었으나 《미국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조선》을 다음기 행정부에 《집권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오바마의 가긍한 처지의 반영임.

o 오바마가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 공갈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고립 압살을 추구하여 온 것이 우리를 핵무기 고도화에로 떠밀어 최강의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당당한 핵 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바마 패는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들면서 전략자산들을 우리 코앞에 들이밀어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있으며 우리 체제의 《붕괴》를 꾀한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있음.

- 또한 주권 국가들에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급을 낮추라고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면서 우리를 고립 압살해보려고 안깐힘(안간힘)을 쓰고 있음.

o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 강압조치를 취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며 평화 시기에 주권국가에 봉쇄형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침략 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이야말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여야 할 첫째가는 대상임.

o 미국은 핵 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이 없는 유엔헌장을 어기고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우리의 핵 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활동을 금지하는 《결의》들을 조작해 냄으로써 이미 국제법을 위반한 죄를 지은 상태임.

o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의 일부 성원국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책동을 반대해 나서고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상회의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대 배격하는 선언이 발표된 것은 미국의 전횡에 대해 분개하는 국제사회의 응당한 반응임.

o 전대미문의 정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가하다 못해 핵 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날강도 무리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핵 무장을 국가 로선으로 정하고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왔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 공격 능력을 갖춘 핵 강국이 되였음.

o 미국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생명을 노린 저들의 창끝이 오히려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되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영국 전투기들 파견 결정 관련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및 '참가 취소' 요구(10.14, 중통)

o 「외무성」 대변인, 前 UN 北인권 특별보고관의 '도덕적 제재' 발언에 대해 비난(10.20, 중통)

o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美·日·韓 해상 합동 군사훈련 비난 및 '핵 무력 강화' 강조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대북 발언 비난(10.22~25, 중통)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14, 중통)

o 보도에 의하면 오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미국-남조선 합동 군사연습에 영국이 자국의 전투기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함.

-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에 로골적으로 가담하는 적대행위로 됨.

o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각종 군사 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 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때에 영국이 이러한 불장난 소동에 참가하는 것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

o 영국은 자국 전투기들의 군사연습 참가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조선 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들인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이번 연습이 우리 군사 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타격 훈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음.

o 우리는 자주권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이 원칙을 어기고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하는데 대하여 수수방관할 수 없음.

o 현 정세 하에서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가 전혀 없으므로 이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군사수단들과 장비들이 우리 군대의 조준경 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함.

o 영국은 조선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수많은 자기 공민들의 목숨만 잃게 하였고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제도 전복》 행위에 가담하여 전 유럽에 전례 없는 테로와 피난민 위기를 몰아온 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침략적인 군사 연습 참가를 당장 취소하여야 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0, 중통)

o 얼마 전 미국은 이전 유엔 조선 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를 서울에 보내여 있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걸고 우리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체육경기들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나라들과의 체육 교류를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잡소리를 줴치게 하였음.

o 이 자의 넉두리는 앙천대소할 소리로서 평화와 친선, 단결과 협조를 기본 사명으로 하는 신성한 올림픽의 정신과 국제 사회의 공인된 원칙들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 정신병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음.

o 이전 유엔 조선 인권상황 관련 특별보고자로 말하면 적대 세력들이 날조해낸 거짓말들을 앵무새처럼 외워대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돌격대 역할을 한 추물임.

o 최근 미 국무장관과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문제 담당 차관보, 유엔 주재 미국대표 등 공식 인물들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입만 열면 우리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지어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만나준다 어쩐다 하면서 부산을 피우다 못해 새로 임명된 유엔 특별보고자를 사촉하여 반공화국 《인권 보고서》를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 들이밀게 하였음.

o 이를 통해 세계 유일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해졌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알 수 있음.

o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체육경기 참가 제한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체육교류 금지와 같은 《도덕적 제재》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놀래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임.

o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그따위 문제를 론의하든 말든 개의치 않지만 그로부터 초래되는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책임지게 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2, 중통)

o 22일 미국, 일본, 남조선 괴뢰들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수많은 군함들과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주요 목표로 하는 도발적인 해상 합동 군사 훈련을 벌려놓았음.

o 이번 미일 남조선 합동 군사훈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지배주의적 야망의 발로임.

o 최근 미국이 핵 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 등 방대한 전략 자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 군사연습을 벌려놓은 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또다시 군사적 압력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으로서의 자기 정체를 더욱 적라라(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은 것으로 됨.

o 지난 6월에 진행된 미싸일 경보훈련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조선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동 군사훈련은 미일남조선 3각 군사동맹이 더는 《유령》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지배전략의 기본 고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음.

o 실제로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2단계 목표에 따라 미일남조선 3자 협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음.

o 현실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음.

o 우리는 자주와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임.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5, 중통)

o 21일 미 국무장관 케리는 무엄하게도 우리에 대하여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정권》이라느니 뭐니 하고 줴쳐댔음.

o 국무장관 감투를 뒤집어쓴 첫날부터 우리에 대해 《불량배 국가》니, 《악의 소굴》이니 하고 악의에 차서 헐뜯어대던 케리가 그 감투를 벗어놓게 된 오늘에 와서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악담질을 해대고 있는 것은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자의 넉두리에 불과함.

o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세계 도처에서 주권 국가의 합법적 정부들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육하고 있는 케리를 포함한 오바마 패당이야말로 불법 비법의 날강도 무리들임.

o 케리와 같은 무지한 정치 불망나니들이 통치하는 미국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이 한결 평온하고 살기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 절대 다수 인민들의 평가임.

o 오바마패가 제아무리 우리를 비법으로 매도하려고 해도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허물지 못할 것임.

o 우리는 케리 따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미 정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것임.

「외무성」 대변인 성명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 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김정은 핵 공격 능력 가진 순간 바로 죽을 것)에 대해 '오바마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10.15, 중통)

▌주요내용

o 지난 12일 미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 라쎌이라는 자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고들면서 우리가 핵공격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때에 끝장날 것이라고 줴쳐댔음.

- 이것은 우리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우리에게 한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임.

o 그러나 이 자의 극악무도한 악담은 완전히 거꾸로 된 역설임.

-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바로 그 순간에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되어 있음.

o 이 자의 악담은 이제 곧 백악관에서 물러나야 할 오바마패의 대조선 정책이 완전 실패로 락인되고 우리를 최강의 핵 보유국으로 떠밀어 미국본토의 안전이 통채로 뒤흔들리게 한 책임을 모면하여 보려는 단말마적인 몸부림에 불과함.

o 지난 20여 년간 대조선 정책에 관여해왔다는 자가 이토록 우리에 대한 무지 속에 헤매이고 있으니 그런 자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내맡긴 미국의 백성들이 가련하기 그지없음.

- 라쎌의 악담이 한 마리 쥐새끼의 비명소리 같지만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오바마의 비명소리임.

o 오바마의 발버둥질에 눈썹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지만 최고 수뇌부 옹위를 제일 사명으로 하고 있는 고도화된 핵 무력을 비롯한 우리 혁명 무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과녁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임.

o 미국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며 오바마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임.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4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개 요

o 北 대표,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 연설(10.13)을 통해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10.17, 중통)

▌주요내용

o 우리나라 대표가 13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특별정치 및 비식민지화) 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 리용에서 국제적 협조》 토의 시 연설하였음.

o 대표는 오늘 우주의 평화적 리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속에 인류의 평화적인 우주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o 일부 나라들에만 국한 되였던 우주 개발 활동에 보다 많은 발전 도상 나라들이 적극 참가하고 있음.

o 우리는 1998년 첫 인공 지구위성을 발사한 때로부터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주 강국 대렬에 들어선데 대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주 개발 활동은 철두철미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추진되고 있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우주 개발국은 국가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음.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우주 활동의 평화적 리용을 촉진하고 우주 분야에서의 국제적 신뢰와 협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련의 우주 관련 국제 조약들과 협약들에도 가입하였음.

- 2009년에 우리나라가 우주 조약과 우주 물체 등록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또한 지난 5월에는 우주 조약과 우주 물체 등록 협약 당사국으로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4》호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유엔에 공식 등록하였음.

o 제반 사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주 개발 활동의 투명하고도 신뢰적이며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성격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탄도로케트 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 개발을 가로막아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음.

o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들로 말하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안보리사회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한갖 미국의 리익에 복무하는 불법, 비법의 조작품에 지나지 않음.

o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국제법에도 탄도로케트 기술을 리용한 위성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반으로 된다고 규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음.

- 이것은 미국이 조작한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들이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법률적 모순투성이들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o 탄도로케트 기술을 리용하여 군사 정탐 위성들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위성들을 제일 많이 쏘아올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 우주 활동을 걸고 드는 것은 언어도단임.

o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공화국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우주 조약에 의해 100% 공인된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의 행사이며 우주 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결코 미국이라는 일개 나라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음.

o 김정은은 지난 5월 조선 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o 국가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당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지 위성을 비롯한 보다 발전된 실용 위성들이 인류 공동의 재부인 무한대한 우주 공간에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것임.

o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며 우주 과학 연구와 위성 발사 분야에서 국제적 협조와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6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개 요

o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제6위원회 회의(10.14) 연설을 통해 △'안보리'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명 수행 △미국의 '유엔사' 해체와 무력 철수 요구(10.20, 중통)

▌주요내용

o 조선 대표가 14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6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 문제》 토의 시 연설하였음.

o 대표는 본회의에 제출된 유엔 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류의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원칙적 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음.

o 첫째로, 국제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유엔 헌장이 규제한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해결해야 할 것임.

- 유엔 헌장은 국제 분쟁 문제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유엔 활동의 주되는 목적의 하나로 규제하고 있음.

- 또한 헌장은 유엔의 활동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과 주권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갈 데 대한 원칙을 견지할 것을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오늘의 국제 정세는 날이 갈수록 복잡 다단해지고 그에 대한 유엔의 대처 방식은 공동의 노력으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해 나가려는 인류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주고 있음.

- 지금 이 시각에도 특정한 국가들에 의해 국제 관계의 기초인 유엔 헌장이 완전히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제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음.

- 주권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후과는 결코 한두 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 전체 나아가서 전 세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둘째로,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걸머진데 맞게 자기의 사명을 공정하고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위성 발사, 정상적인 탄도로케트 발사를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문제시하는 비법, 불법의 대조선 《제재 결의》들을 채택하였음.

- 유엔 헌장과 현존 국제법들 그 어디에도 핵 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음.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미국이 진행한 핵 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싸일 발사 지어 핵 선제타격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는 《싸드》의 남조선 배비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위험하여도 전혀 못 본 척 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와 평화적 위성 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이중 기준의 극치를 계속 연출하고 있음.

- 더우기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해마다 조선 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킬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도 외면하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를 비롯한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마당으로 도용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 사회의 요구대로 안전보장 리사회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함.

o 셋째로, 유엔이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배치되게 도용되여 온 불미스러운 력사에 하루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함.

-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1950년 조선 전쟁 도발의 책임을 가리우고 저들의 무력 개입을 합법화할 목적 밑에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을 조작하였음.

-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조작한 후 오늘에 이르는 60여 년간 유엔의 기발을 들고 남조선에 침략적인 무력과 군사 기지들을 유지하는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조선 반도와 지역 정세를 격화시켜왔음.

o 김정은은 지난 5월 조선 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미국은 핵 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였음.

o 우리는 유엔 총회 제30차 회의 결의대로 미국이 비법적인 남조선 주둔 《유엔군 사령부》를 하루 빨리 해체하고 모든 침략 무력을 철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성원국들이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리종혁, 국제 의회동맹 제135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

▌개 요

o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제135차 총회(스위스 제네바, 10.25)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와 인권문제' 관련 비난(10.29, 중통)

▌주요내용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인 리종혁 조국통일 연구원 원장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국제 의회동맹 제135차 총회 전원회의에서 25일 연설하였음.

o 그는 미국이 공화국을 상대로 감행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정치 경제적 제재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대량 살륙 인권범죄라고 단죄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전체 인민이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경제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세상임.

- 그러나 대조선 적대시를 국가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기도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게 되자 악랄한 경제 제재와 비렬한 《인권》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음.

-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들과 평화적인 인공 지구위성 발사까지 걸고들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권능에도 어긋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하고 반공화국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을 위협 공갈하여 우리와의 정상적인 정치, 경제 교류까지 차단하려고 획책하고 있음.

- 지어 미국은 유치하게도 군사적 목적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체육 기자재들의 반입까지 가로막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이 국제 의회동맹 서기국에 성원국 회비를 지불하는 은행 송금 결제도 거절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어떠한 제재나 봉쇄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으며 참된 인권증진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을 수 없음.

o 그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이름으로 꾸바와 이란, 수리아, 수단과 민주 꽁고를 비롯한 동맹의 다른 성원국들에 가해지는 미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고 하면서 인권문제와 관련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음.

- 현 시기 국제적 정의에 부합되게 인권문제를 옳게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제관계에서 국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함.

- 다음으로 인권 문제에서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 국가수뇌자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문건에는 120개 운동성원국들의 일치한 지향을 반영하여 인권문제의 취급에서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을 반대 배격할 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음.

- 자주성을 옹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주권 담보의 강력한 힘을 키우는 동시에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여 인권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지배주의 세력의 책동에 일치한 반격을 가하여야 할 것임.

o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김정은을 최고 수위에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들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지상 락원을 끝까지 수호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 인권옹호를 위한 진보적 인류의 투쟁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임.

주요인물 동정

김정은(당 위원장)

(미상)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현대적인 교육설비 등 선물 전달(10.5, 중방)

(미상) 故 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영전에 조화 전달(10.5, 중통)

(미상)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방문(10.7, 중통·중방)

(미상) 전국 육아원·애육원 및 초·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선물 전달(10.10, 중방·평방)

(미상) 쿠바 내각 수상·라오스 주석·태국 국왕 및 인도·이집트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등 답전(10.10, 중통·중방)

10.15 태국 국왕(푸미폰 아둔야뎃) 서거와 관련해 同國 왕세자(마하 와치랄롱꼰)에게 조전(10.15, 중통)

(미상)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10.18, 중통·중방)

(미상) 함북 북부 피해지역 유치원·탁아소·인민병원 등에 '담요' 지원(10.20, 중방)

(미상) 함북 북부 피해 관련 위문 전문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10.20, 중통)

(미상) 최춘녀(女, 평안북도 의주군 거주)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10.22, 중통·중방)

10.25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전달(10.27, 중통·중방)

(미상)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단위들에 '감사' 전달(10.28, 중방)

(미상)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10.29, 중방·중통)

(미상)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부엌세간들 전달 칭송(10.29, 중방)

(미상) 100살 장수자 김승옥(자강도 희천시 송지리 8인민반)에게 생일상 전달(10.29, 중통)

(미상)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0.30, 중통·중방)

강하국(보건상)

10.25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5, 중통)

10.30 안과전문병원 '류경 안과종합병원(평양 문수지구)' 개원식 참가(10.31, 중통·중방)

곽범기(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6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식 참가(10.6,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31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 참가(10.31, 중통·중방)

김기남(당 중앙위 부위원장)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과학전시관 참관(10.1,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체육경기 관람(10.1, 중통·중방)

10.04 전국 정보화성과 전람회 2016 개막식 참가 및 개막연설(10.4, 중통)

10.05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10.5, 중통)

10.06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경축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 참가(10.6,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 및 사회(10.7, 중통·중방)

10.07 전국 정보화성과 전람회 2016 폐막식 참가(10.7, 중통·중방)

10.09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 참가(10.10, 중통)

10.16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0.17)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가 및 보고(10.16, 중방·중통)

10.16 北 인민내무군 여성 취주악단 창립('96.10.17) 2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10.16, 중통·중방)

10.18 조선기자 동맹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0.18, 중통)

10.22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직맹 일꾼·노동자 등) 숙소 방문 격려(10.22, 중통)

10.24 당 중앙위 기관지 '근로자' 창간(10.25) 7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가(10.24, 중통)

10.25 ~26 「직총」 제7차 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시 참가(10.30, 중통·중방)

김능오(평안북도 당 위원회 위원장)

10.06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식 참가(10.6, 중통)

김덕훈(내각 부총리)

10.05 인민문화궁전에서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참가(10.5, 중통)

김봉석(평양시 당위원회 부위원장)

10.06 용악산 샘물공장 종업원들,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궐기모임 참가(10.7, 중방)

김성일(함경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10.15 함흥 의학대학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 참가(10.14, 중통)

10.15 함흥 의학대학 창립 70돌 기념 보고회 참가(10.14, 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위원장)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30 안과전문병원 '류경 안과종합병원(평양 문수지구)' 개원식 참가 (10.31, 중통·중방)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북-쿠바 단결위원장)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5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가(10.5, 중통·중방·평방)

10.12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폐막식 참가(10.12, 중통)

10.13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 (10.13, 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1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드 부하리)에게 '독립 56주년' 축전(10.1,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과학전시관 참관(10.1,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체육경기 관람(10.1, 중통·중방)

10.02 기니 독립 58돌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0.2, 중통·중방)

10.04 레소토 왕국 국왕(렛트시에 3세)에게 '독립 50주년' 축전(10.4, 중통·중방)

10.05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10.5,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10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김정은 명의 꽃바구니 진정(10.10, 중통)

10.10 노동당 설립 71주년 맞이 음악무용 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공연 관람(10.10, 중통)

10.09 우간다 독립 54주년에 즈음하여 同國대통령에게 축전(10.9, 중통·중방)

10.12 적도기니 독립 48주년에 즈음하여 同國대통령에게 축전(10.12, 중통·중방)

10.14 작별 방문한 주북 아제르바이잔 대사와 담화(10.14, 중통)

10.16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10.17)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가(10.16, 중방·중통)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10.17) 90주년 즈음 대성산 혁명열사능 헌화(10.17, 중통·중방)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10.17) 90주년 즈음 연극 '혈맥' 공연, 관람(10.17, 중통)

10.24 잠비아 독립 52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0.24, 중통·중방)

10.29 터키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10.29, 중앙통신)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03 단군릉 앞에서 진행된 개천절 기념행사 참가(10.3,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김영철(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5 北 해외동포 원호위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에서 통일 자전거행진 참가자들을 위한 마련한 연회 참가(10.5,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25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단 귀환,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 축하 및 선수단 카퍼레이드·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10.25, 중통·중방)

김용수(당 중앙위 부장)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 시 동행(10.18, 중통·중방)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김정순(여맹위원장)

10.06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덕성 연구 발표 모임 참가(10.6, 중통·중방)

김평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노광철(인민무력성 제1부상)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로두철(내각 부총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10.04 전국 정보화성과 전람회 2016 개막식 참가 및 개막연설(10.4,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07 전국 정보화성과 전람회 2016 폐막식 참가(10.7, 중통·중방)

10.31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 참가(10.31, 중통·중방)

리룡남(내각 부총리)

10.25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단 귀환,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 축하 및 선수단 카퍼레이드·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10.25, 중통·중방)

리만건(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10.06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과 당 설립 71주년 즈음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 원들의 경축모임 참가(10.6, 중통)

리병철(당 중앙위 제1부부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4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와 담화 및 팔레스티나 대통령의 김정은에게 보낸 당 창건 71주년 꽃바구니 인수(10.4,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12 주북 쿠바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10.12, 중통)

10.13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 (10.13, 중통)

10.24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수용),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베트남) 참가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 출발(10.24, 중통)

10.26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수용),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참가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도착(10.27, 중방)

10.28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하노이) 연설(10.30, 중방·중통)

(미상)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헝가리 노동당 위원장 등 각국 당수들 면담 (10.31, 중통·중방)

(미상)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베트남) 기간 캐나다 공산당 총비서·남아프리카 공산당 국제관계 비서·요르단 공산당 총비서 등 여러 나라 정당 인사들과 담화(10.31, 중통)

리용호(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외무상)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09 신임 가봉 국무상 겸 외무상에게 축전(10.9, 중통)

10.12 주북 시리아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 (10.12, 중통)

10.15 태국 외무상에게 조전(10.15, 중통)

10.28 체코 외무상(루보미르 자오랄렉)에게 '兩國 친선 협조관계 발전' 표명 등 '국경절' 축전(10.28, 중통)

10.27 리용호, 카메룬 대외관계상(르전 음벨라)에게 '열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문전문(10.28, 중통)

리일환(당 중앙위 부장)

10.05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가(10.5, 중통·중방·평방)

10.21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제7차 대회 기념 직업동맹 사업성과 전시회 참가(10.21, 중통)

10.25~26 「직총」 제7차 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7, 중통·중방)

10.28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들 축하 모임 및 여자 축구 선수단 성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참석(10.2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시 참가(10.30, 중통·중방)

리종무(체육상 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10.13 제13차 인민체육대회 개막식 참가(10.13, 중통·중방)

10.25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단 귀환,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 축하 및 선수단 카퍼레이드·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10.25, 중통·중방)

10.26 北 국가체육지도위, U-17 여자 월드컵 우승 여자 축구선수단 성원들의 경기 성과를 축하하여 환영 연회(옥류관) 참가(10.26, 중통)

10.28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들 축하 모임 및 여자 축구 선수단 성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참석(10.28, 중통·중방)

10.31 제13차 인민체육대회 폐막식(평양체육관) 참가·폐막사(10.31, 중통·중방)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

10.05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가(10.5, 중통·중방·평방)

10.07 전국 정보화성과 전람회 2016 폐막식 참가(10.7, 중통·중방)

10.12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폐막식 참가(10.12, 중통)

10.17 용성 닭공장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0.18, 평방)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 시 동행(10.1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 시 동행(10.29, 중통·중방)

박경일(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10.11 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 北 준비위 대표단(단장: 박경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환(10.11, 중통·중방)

10.25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5, 중통)

박명국(외무성 부상)

10.25 北-中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평양)에서 류진민(劉振民, 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함께 참가(10.25, 중통·중방)

박명순(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방문시 동행(10.7, 중통·중방)

박봉주(내각 총리)

(미상) 함경남도 흥남항 현지 시찰(10.2,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09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 참가(10.10, 중통)

10.10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김정은 명의 꽃바구니 진정(10.10, 중통)

10.11 황해남도 농사실태 점검 및 룡악산 샘물공장 방문(10.11, 중통·중방)

10.15 태국 수상에게 조전(10.15, 중통)

(미상) 함경북도 회령시·연사군·무산군 피해 복구 지역 방문(10.18, 중통)

(미상) 평안남도 안의 여러 협동농장 농사실태 점검(10.29, 중통·중방)

10.31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 참가·준공사(10.31, 중통·중방)

10.31 스페인 총리로 재선출된 '마리아노 라호이'에게 축전(11.2, 중통·중방)

신홍철(외무성 부상)

10.12 주북 러시아 대사, 北-러 외교수립 68주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10.12, 중통)

10.25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5, 중통)

안동춘(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10.12 조선작가동맹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0.12, 중통)

안정수(당 중앙위원회 부장)

(미상) 김정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방문시 동행(10.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 시 동행(10.29, 중통·중방)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0.01 국제노인의 날을 맞은 北 연로자들과 혁명가극 관람(10.1, 중통)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18 ~19 北 적십자 대회 참가 및 축하 연설(10.19, 중통·중방)

오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10.01 국제노인의 날을 맞은 北 연로자들과 혁명가극 관람(10.1, 중통)

(미상) 김정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방문시 동행(10.7,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09 강동 수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 및 축하문 전달(10.10, 중방)

10.11 '갈림길 기동여단'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0.12, 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 시 동행(10.29, 중통·중방)

윤동현(인민무력성 부상)

10.25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5, 중통)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10.4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현대적인 교육설비 등 선물 전달 모임 참가(10.5, 중방)

10.05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가 및 개막연설(10.5, 중통·중방·평방)

10.10 제11차 학생 소년예술 개인경연 입선자들 종합발표회 관람(10.10, 중통)

10.12 주북 시리아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 (10.12, 중통)

10.31 금성학원·금성 제1중학교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가(10.31, 중통)

정영수(노동상, 북-이란 친선협회 위원장)

10.01 국제노인의 날을 맞은 北 연로자들과 혁명가극 관람(10.1, 중통)

조석호(수도건설위원장)

10.11 '갈림길 기동여단'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 참가(10.12, 중방)

조연준(당 중앙위 제1부부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조용원(당 중앙위 부부장)

(미상) 김정은,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방문시 동행(10.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 시 동행(10.18,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 시 동행(10.29, 중통·중방)

주영길(직총 중앙위원장)

10.05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돌과 당 창건 71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 참가 및 보고(10.5, 중통)

10.13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 당 설립 71주년에 즈음하여 마련한 연회 참석 (10.13, 중통)

10.18 평양 문수지구 중앙노동자회관 준공식 참가(10.18, 중통)

10.20 「직총」 제7차 대회 기념사진 전람회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10.20, 중통·중방)

10.27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 서한(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 조직들의 과업)' 관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참가 및 보고(10.27, 중통·중방)

10.25 ~26 「직총」 제7차 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7, 중통·중방)

10.27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모임 참가(10.27, 중앙통신)

(미상) 김정은,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시 참가(10.30, 중통·중방)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최룡해(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10.04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현대적인 교육설비 등 선물 전달 모임 참가(10.5, 중방)

10.05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진행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 참가(10.5, 중통)

10.06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덕성 연구 발표 모임 참가(10.6, 중통·중방)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 및 보고(10.7, 중통·중방)

10.09 김일성 경기장 준공식 참가 및 준공연설(10.10, 중통)

10.10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김정은 명의 꽃바구니 진정(10.10, 중통)

10.10 노동당 설립 71주년 맞이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10.11, 중통·중방)

10.13 제13차 인민체육대회 개막식 참가(10.13, 중통·중방)

10.16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10.17)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가(10.16, 중방·중통)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10.17) 90주년 즈음 대성산 혁명열사능 헌화(10.1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 시 동행(10.18, 중통·중방)

10.18 평양 문수지구 중앙노동자회관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10.18, 중통)

10.20 「직총」 제7차 대회 기념사진 전람회 개막식 참가(10.20, 중통·중방)

10.22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 시 평양역 마중·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10.22, 중방·중통)

10.22 「직총」 7차 대회 참가자들,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관람(10.23, 중통·중방)

10.27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 서한(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 조직들의 과업)' 관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 참가(10.27, 중통·중방)

10.25 ~26 「직총」 제7차 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7, 중통·중방)

10.30 김정은,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시 참가(10.30, 중통·중방)

최부일(인민보안상)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최태복(당 중앙위 부위원장)

09.30 김형직 사범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참가(10.1, 중방)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과학전시관 참관(10.1, 중통·중방)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체육경기 관람(10.1, 중통·중방)

10.22 「직총」제7차 대회 참가자들(직맹 일꾼·노동자 등) 숙소 방문 격려(10.22, 중통)

10.26 제27차 전국 정보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참가(10.26, 중앙통신)

10.30 안과전문병원 '류경 안과종합병원(평양 문수지구)' 개원식 참가·개원사(10.31, 중통·중방)

태형철(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09.30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2, 중통·중방)

10.06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 '김정은 서한' 관철 궐기모임 참가(10.7, 중방)

홍선옥(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10.25 중국군의 '6·25 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5, 중통)

황병서(총정치국장)

10.07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10.7, 중통·중방)

10.10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김정은 명의 꽃바구니 진정(10.10, 중통)

10.10 노동당 설립 71주년 맞이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10.11, 중통·중방)

10.16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10.17)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참가(10.16, 중방·중통)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10.17) 90주년 즈음 대성산 혁명열사능 헌화 (10.17, 중통·중방)

(미상) 김정은,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 공개 활동시 동행(10.29, 중통·중방)

월간 보도일지

대내동향

10.01(토)

■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46.10.1) 70주년 기념 동향】

* 김영남·김기남·최태복 등 당과 국가 책임 일꾼 등, 대학에 조성된 교육과학 전시관 10월 1일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체육경기(대중 율동체조·건강 태권도·농구·배구·배드민턴 등) 10월 1일 진행, 김영남·김기남·최태복 및 대학 일꾼·교직원 등 관람(중앙통신)

* 김일성 종합대학은 지난 70년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수만 명의 민족 간부들을 키워내어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수행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 선전(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김일성 종합대학은 주체 교육과 과학의 최고 전당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다)

* 국가 우표발행국, 기념우표(소형 전지 3종) 발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형직 사범대학 창립('46.10.1)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9.30, 인민문화궁전), 최태복(黨 부위원장, 黨 축하문 전달) 등 참가(중앙방송)

* 김철주 사범대학 창립('46.10.1)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9.30), 김수길(평양시 黨 위원장, 黨 축하문 전달)·주정실(총장, 기념 보고) 등 참가(중앙방송)

■ 고산 과수종합농장 종업원·'6.18 건설 돌격대원들', '김정은 현지지도 지시 관철' 궐기모임(9.30) 진행(중앙방송)

■ 「국제노인의 날(10.1)」을 맞은 北 연로자들이 혁명가극 관람(평양대극장) 및 체육·유희 오락경기 등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 향유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선전(중앙통신)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오수용(黨 부위원장)·정영수(조선 연로자 보호연맹 중앙위원장) 등 혁명가극 관람

■ 평안남도 공장과 기계공업 부문 노동계급, 피해 복구 지역에 보내줄 자재·물자(각종 전선 수천㎞ 등) 증산 전달(중앙통신)

10.02(일)

■ 김정은 黨 위원장, 중요대상 건설을 성심성의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46.10.1) 70주년 기념 동향】

* 중앙보고대회, 9월 30일 '4.25 문화회관'에서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김수길·조연준·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태형철(총장 겸 고등교육상, 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 중요대상 건설을 성심성의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남도 흥남항 현지 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

- 흥남항 짐배들의 출항과 시멘트 상선 실태를 알아보고 함흥시 인민들을 고무
- 또한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용성 기계연합기업소, 흥남 전극공장을 돌아보며 비날론 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 보수용 자재, 협동품을 원만히 보장하며 전극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대책 마련

■ 장자강 발전소, 9월 전력생산 계획 122%로 초과 달성(중앙방송)

10.03(월)

■ 개천절 기념행사(10.3), 단군릉 앞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대(「민화협」 회장, 조선 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완수(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장), 윤정호(단군민족협의회 부회장, 기념 보고) 등 참가

■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예방약, 구급약, 수술기구 등 400여 종 수천만 점의 의료품 긴급 수송 등' 의료 봉사활동 진행(중앙통신)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와 긴밀한 연계 밑에 피해 지역 주민 17만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 진행

10.04(화)

■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6(주제: 자강력 제일주의와 집단주의적 경쟁열풍, 세계적인 경쟁력)' 개막식 진행(10.4, 3대혁명 전시관), 김기남(黨 부위원장, 개막사)·로두철(내각 부총리) 등 참가(중앙통신)

- 정보화 실현 과정에 해결한 과학기술적 내용과 경제적 효과성을 심사하고 해마다 정보화 모범단위, 10대 최우수 정보기술기업, 10대 최우수 정보기술 제품 선정
- 260여개 위원회, 성, 중앙기관, 교육 및 과학연구 기관들과 공장 등 정보산업 단위들이 내놓은 1,000여건 정보화 성과들, 정보기술 제품들 전시

■ 김정일 저작(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발표일('90.10.3) 계기 '김정일의 노동당 강화발전 공적 및 김정은의 수령의 당,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 영도' 칭송(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

■ 사과 맛 품평회(단맛·신맛·향기·수분 등 군중심사 평가) 진행(10.4, 평양시 중구역 은정찻집) 및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20여종 출품(중앙통신·중앙방송)

■ 함경북도 돌격대원들의 연사지구에 1,100여 세대 살림집 건설 공사 성과(기초 콘크리트치기 공사 완료·벽체 축조 진입 등) 및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의 9월 시멘트 생산 119% 수행(중앙방송)

* 군인 건설자들의 회령시 살림집 건설(근 1,800세대 기초굴착 종료 및 기초 콘크리트 치기 90% 계선 돌파)과 살림집 '블로크 백 수십만 장' 생산 등 회령시 피해 복구(중앙통신)

* 함경북도 회령시(회령-부령 도로 복구) 및 무산군(50여km 도로 확장공사 마감단계 등)·경흥군(70여km 구간 철길복구 등) 인민위원회 일꾼 등 "피해 지역 정권기관 일꾼들의 복구사업 앞장" 치하(중앙통신)

* 인민내무군 전광철 소속부대 장병들, 10일간 백 수십 세대 살림집 골조공사 87% 계선 돌파(중앙방송·노동신문)

■ 북한에서 "민간요법들을 과학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각종 도서(평양산원 집필, '민간고려약 음식 편람 전 2권·6,000가지 처방 전 3권')" 출판(중앙통신)

10.05(수)

■ 김정은 黨 위원장,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현대적인 교육설비 등 선물 전달 및 10월 4일 최룡해(黨 부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 참석한 가운데 '선물 전달 모임' 진행(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 故 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영전에 조화 전달(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일성훈장 수훈자, 조국통일상 수상자

■ 김정은 저작(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5.10.4) 발표 1주년 관련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필승의 보검, 혁명적 당 건설의 백과전서, 불멸의 대강'이라며 '저작이 밝혀준 사상들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구현해 나감으로써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고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완성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10.5), 황해북도 개성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영남(제막사), 최룡해, 김기남 등 참가

■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사적비(역사의 그 자욱 만대에 빛나리) 준공식(10.5), 평안북도 인민보안국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길이 빛나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여) 준공식(10.5),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해외동포 원호委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 통일 자전거행진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인민문화궁전, 10.5) 마련(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철(黨 부위원장, 북측 준비위 위원장) 등 참가

■ '4.25 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복무의 자욱' 제작(중앙통신)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10.8) 19돌과 당 창건(10.10) 71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10.5),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주영길「직총」중앙위 위원장(보고) 등 참가

* 조일민(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과 지부 성원들, 黨 창건(10.10) 71돌 즈음 당 창건 사적관 참관(중앙통신)

■ 전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10.5),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인민문화궁전에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직'(10.5) 수여(중앙통신)

■ 北, 함북 북부 피해 지역 변전소들과 650여리 구간의 송전선들이 모두 복구되어 전 지역에 대한 송전계통이 정상 가동되었다고 보도(중앙통신)

10.06(목)

■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덕성 연구 발표모임(10.6), 최룡해(당 부위원장)·김정순(여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10.8) 19주년과 당 설립(10.10) 71주년에 즈음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10.6),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 협동농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10.5~6),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경축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10.6),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 미술박물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홍건도 간석지 1단계 준공식(10.6), 곽범기(당 부위원장)·김능오(평안북도 당위원장, 준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경북도 경흥군 피해 복구 지역, 200여 세대 살림집 벽체 축조 공사 완료(중앙통신)

*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함경북도 피해 복구 지역에 시멘트 7만여 톤 공급(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 공연(10.4~6),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나선시 선봉지구 웅상동에서 원시 및 고대시기 유적·유물들 발굴(중앙통신)

- 원시시대의 바위 그늘 유적(높이 3m, 면적 80㎡)과 고대시기의 고인돌 무덤 2기, 살림집터 1개, 1,000여 점 유물 발굴

- 발굴된 유적·유물들은 학계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동북 조선일대 고대문화의 면모를 해명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짐.

■ 北, 꿩(1만여 마리)과 노루(100여 마리)를 10월 6일 황해북도 산에 방생(중앙통신)

10.07(금)

■ 김정은 黨 위원장,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79.12월 건립)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수용(당 부위원장), 안정수(당 부장), 조용원·박명순(당 부부장들) 동행
- 김정은은 '우리(北)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쟈크를 생산하고 있는 데 정말 마음에 든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대적인 인민소비품 생산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9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10.7, 인민문화궁전) 진행(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의 당 및 사회주의 건설·핵보유 등 국방공업 강화발전 등 업적' 칭송 및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편단심 충정으로 받들고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 옹위해야함'
- 全民은 '200일 전투 성과 창조 및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해야 함'(최룡해)
-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보고), 김기남(사회) 등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 등 참석

■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6' 폐막식 진행(10.7, 3대혁명 전시관), 김기남(黨 부위원장)·로두철(내각 부총리)·리충길(국가 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새 제품 발표회, 경험 토론회 등을 통해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이 널리 소개되고 첨단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 '김정은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 관철 궐기모임 진행(10.6), 태형철(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 참가(10.7, 중앙방송)

■ 용악산 샘물공장 종업원들,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궐기모임 진행(10.6), 김봉석(평양시 당 부위원장) 등 참가(중앙방송)

■ 함경북도 회령시 등 道內 10만 4,000여 명의 청년들이 수백 개 돌격대에 망라되어 '수백세대 살림집과 120여 개소 11만여m 철길·도로 수해 복구 성과 등 청년돌격대 활동' 치하(중앙통신)

10.08(토)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일(10.8) 관련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정은

두리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고 호소(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9돌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10월 8일 각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각 도 소재지들과 시·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 무도회 진행

10.09(일)

■ 경공업 부문, 함경북도 피해 복구 지역에 생활필수품 공급(중앙통신)

* 조선작가동맹 작가들, 피해 복구 지역에서 화선식 경제선동 진행(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 대표팀, '2016 FIFA U-17 여자월드컵'(요르단)에서 조 1위로 8강 진출(중앙통신·평양방송)

10.10(월)

■ 김일성 경기장(4만여 석) 준공식(10.9), 박봉주·최룡해(준공사)·김기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앙통신)

■ 김정은 黨 위원장, 전국 육아원·애육원 및 초·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솜옷·운동복·신발 등 '선물' 전달(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노동당 설립 71주년 경축 행사 등 동향】

*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 등, 10월 10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및 김정은 명의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음악무용 이야기('청춘의 자서전') 공연 진행(10.10, 동평양 대극장),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 일꾼·우당 위원장·당·무력 일꾼 등 관람(중앙통신)
* 노동당의 지난 70여년 역사는 "백전백승을 떨쳐온 성스러운 역사"라고 自評 및 김정은의 黨 수위 추대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며 전진하는 노동당은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이라고 주장(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조선노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인민의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울 것이다)
* 김정은 연설 1주년 즈음 '지난 1년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노동당의 위대성이 뚜렷이 과시(핵·군사 강국)된 한해였다'고 주장 및 '인민·군대·청년중시의 3대전략 고수'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인민중시·군대중시·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영도원칙)

※ 김정은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2015.10.10, 黨 설립 70주년 경축'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 제11차 학생 소년예술 개인경연 입선자들 종합발표회 진행(10.10,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전용남(청년동맹 1비서) 등 관람(중앙통신)

* 인민군 장병들과 각 계층 근로자·청소년 학생 등, 만수대언덕 등 평양과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꽃다발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모란봉 극장)·혁명가극(평양 대극장)·개성시 근로자·청소년 학생들 종합공연(개성 광장) 등 중앙과 지방에서 공연 진행(중앙통신)

* 청년 학생들 무도회(10.10), 평양(당 창건 기념탑·개선문 등)과 각 도 소재지 및 시·군들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강동 수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10.9), 오수용(黨 부위원장, '黨 축하문' 전달) 등 참가(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 벽화, 회창군(平南)·순천 구두공장·평안북도 黨 학교·단천시에 각각 건립 및 준공식(중앙통신)

■ 정영희(교육위원회 부국장), 제17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9.26, 3대혁명 전시관 개막)에 출품된 1,000여건의 "가치 있는 프로그램(김일성종합대학, 다국어 전자그림 사전 등)" 소개(중앙통신)

■ 평안북도 공장·기업소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설비(낙원 기계연합기업소, 유압식 굴착기 등)·생활필수품" 전달(중앙통신)

* 온성군 살림집 건설장에서 9월말까지 900여 세대 살림집 콘크리트 치기 완료 및 10월 7일 현재 단층 살림집 지붕공사 진입(중앙방송·노동신문)

10.11(화)

■ 【北 노동당 설립 71주년 경축 행사 등 동향】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진행(10.10, '4.25 문화회관'), 황병서·최룡해 등 당과 국가 책임 일꾼 등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농사실태 점검 및 룡악산 샘물공장 방문(중앙통신·중앙방송)

- 연안군과 배천군 안의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 책임제를 잘 실시하며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널리 받아들일 데 대해 강조
- 연관 단위들에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필요한 전력과 자재 등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들 강구

■ 北,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적십자대회 진행 예정(중앙통신)

- 적십자회 사업 총화와 2020년까지의 전략계획, 예산 등 토의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현지지도 표식비 및 혁명사적 표식비 준공식, 여러 단위들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경남도 검찰소, 염주군 신정 협동농장, 염주 청년양어장, 화평 군민발전소, 류경 김치공장

■ 北, 능라 인민유원지에 미로 유희시설(부지면적 990여㎡) 신설(중앙통신)

■ 北 공장·기업소들,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보낼 건설자재 보장 투쟁 총집중(중앙통신)

* 청진항과 청진 철도국, 북부 피해 지역에 매일 1만여t 시멘트 수송(중앙통신)

10.12(수)

■ 조선작가동맹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10.12), 안동춘(조선문학예술 총동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일성 저작(사회주의 의학은 예방 의학이다) 발표('66.10.20) 50주년 기념 중앙과학의학 토론회(10.12), 김형훈(조선의학협회 위원장, 개회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갈림길 기동여단' 창립 30주년 기념보고회(10.11), 오수용(당 부위원장)·조석호(수도건설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중앙방송)

■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폐막식(10.12), 리충길(국가과학기술위원장)·김승두(교육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열사들(리충수 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선우학원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고문)의 유해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중앙통신)

■ '당 설립'(10.10) 71주년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10.11~12),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 공연(10.8~12),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경북도 피해 복구 지역 경흥군, 100세대 살림집 공사 마감단계 추진 및 회령천 기슭에 140여 세대 골조공사 완공(중앙통신)

10.13(목)

■ 제13차 인민체육대회(평양과 각지에서 축구·농구·육상 등 진행) 개막식 (10.13, 평양체육관), 최룡해(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당 부위원장) ·리종무(체육상, 개막사)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체육성에서 북부 피해 복구 지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식량·생활필수품 10여종 5만 4,300여점' 전달(중앙통신)

* 함경북도 근로자들, 10월 9일 현재 '120여개 호동 200여 세대 살림집 건설공사 70% 돌파 등 경원군 살림집 건설에서 연일 성과'(중앙통신)

* 순천 시멘트연합기업소의 9월 시멘트 생산계획 113% 수행과 천내리 시멘트공장의 시멘트 2,000여t 초과 생산 등 '건재공업 부문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지역에 보내줄 건재생산 확대'(중앙통신)

■ '문수 천연 물 정제기(금화 무역회사)'의 '무동력, 세균 제거율 99.9% 이상' 등 제품 선전(중앙통신)

* 평안북도(정주시 등) 농촌들에서 '가을 밀보리 파종 완료'(중앙방송)

10.14(금)

■ 北 대표팀, 10월 13일 對가나 2:1 승리 등 2016년 국제축구연맹 U-17 여자 월드컵 준결승 진출(중앙통신)

■ 함흥 의학대학 창립(10.15) 70돌 기념보고회(10.14),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경북도 경흥군 읍지구, 100세대 살림집 지붕 공사 완료(중앙통신)

* 금속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들, 함북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보내줄 철강재 증산투쟁 확대(중앙통신)

–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철강재 생산성과를 확대

■ 조선노동당 출판사,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돌 경축 '선전화' 제작(중앙통신)

10.15(토)

■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10.17) 90주년에 즈음하여 '타도 제국주의동맹 이념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뿐 아니라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세계의 자주화 위업 실현의 먼 앞날까지 내다본 숭고한 이념'이라며 '타도 제국주의 동맹 위업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칠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정신이 굳건히 계승되는 조선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10.14), 최일룡(경공업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평양방송)

■ 北, 대동강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에서 10월 9일 두 번째 물고기들 수확(중앙통신)

– 현재까지 양어장에서 수확한 물고기와 조개는 10여 톤에 달함.

■ 함경북도 회령시(피해 복구 지역), 1,700여 세대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중앙통신)

10.16(일)

■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10.17) 90주년 중앙보고대회 진행(10.16, 인민문화궁전), 김영남·황병서·최룡해·김기남(보고)·최태복(사회)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 일꾼들 참가(중앙방송·중앙통신)

- ‘트드에서 시작된 자주, 선군, 사회주의 고수’ 강조 및 全民 ‘김정은에 대한 충성 및 북부 피해 복구에 총력 집중’ 독려
-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 이룩 및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 이념을 일관하게 구현해 나갈 것’(김기남)

■ 주북 외교단 체육경기(4번째) 진행(10.11-16, 평양 능라 인민체육공원에서 축구·배구·농구 등), 10월 16일 궁석웅(전 외무성 부상) 등 축구 결승 관람(중앙통신)

■ 北 인민내무군 여성 취주악단 창립(‘96.10.17) 2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10.16),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자강도에서 ‘건구류(강계시·만포시·화평군 등 1만 4,000여개 생산)를 실은 첫 열차’, 북부 피해지역으로 출발(중앙통신)

*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의 송전탑 17기 건립 및 회령시 모든 단위에 전력공급 재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이 15일 현재 6개 시·군들에서 200여동 소층 살림집·2,500여동 단층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중앙방송·노동신문)
* 철도과학 분원 과학자들(철길 연구집단 등), 곡선 콘크리트 침목 생산 공정 확립 등 “200일 전투 중심과제를 북부 피해 복구에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로 돌리고 그 집행에 주력” 강조(중앙통신)

10.17(월)

■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10.17) 90주년 관련 동향】

*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돌을 맞으며 ‘ㅌㄷ는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혁명 승리의 기치’라며 ‘ㅌㄷ의 붉은 깃발은 앞으로도 김정은 따라 전진하는 당과 혁명 대오의 진두에 높이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ㅌ·ㄷ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
* 김영남·황병서·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 일꾼들, 10월 17일 대성산 혁명열사능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연극 ‘혈맥’ 공연, 10월 17일 국립 연극극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김영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관람
* 인민군 장병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및 청소년 학생들,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헌화(중앙통신·중앙방송)
*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 무대 공연, 10월 17일 당 창건 기념탑 광장에서 진행(중앙통신)
*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10월 17일 각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우표 발행국,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90돌 기념우표 2종(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발행(중앙통신)

■ ‘세계 손 씻기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10월 17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2016 ‘세계 식량의 날’ 즈음한 토론회, 10월 1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농업성을 비롯한 연관 단위 일꾼들과 駐北 세계 식량계획(WFP),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부대표 등 참가

■ 北, 함북 북부 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곧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을 하게 된다고 보도(중앙통신)

■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북부 피해 복구 전투장으로 시멘트 전량 지원 완료(중앙통신)

10.18(화)

■ 김정은 黨 위원장,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 종합병원 공개 활동(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최태복(黨 부위원장), 김용수(黨 부장), 조용원·리문건(黨 부부장), 마원춘(국무위 설계국장) 동행
- 김정은, 병원 운영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 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

■ 박봉주(내각 총리), 함경북도 회령시·연사군·무산군 피해복구 지역 방문(중앙통신)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북부 피해지역 건설을 하루빨리 끝내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대책들을 토의
- 김책 제철 연합기업소와 청진 제강소, 청진항을 돌아보면서 북부 전역에 보내줄 철강재 생산과 시멘트 등 피해복구 자재 수송을 다그칠 데 대해 강조

■ 평양 문수지구 중앙노동자회관 준공식(10.18), 최룡해(당 부위원장, 준공사)·주영길(직총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

■ 조선기자 동맹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10.18),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용성 닭공장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10.17), 리철만(당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평양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北 적십자회 창립 70주년 기념우표(개별우표 1종) 발행(중앙통신)

■ 함북 북부 피해지구 6개 시·군, 200여 동 소층 살림집과 2,500여 동 단층 살림집 골조 공사 완료(중앙통신)

* 함북 회령시, 10일 동안 송전탑 17기 건립(중앙통신)
* 北, 함북 북부 전역에 대한 시멘트 수송 마감단계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북 경흥군·무산군 학생 소년들,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로 출발(10.18,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 대표팀, '2016 FIFA U-17 여자월드컵' 결승 진출(중앙통신)

10.19(수)

■ 北 적십자 대회 진행(10.18~19, 인민문화궁전),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축하 연설)·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 등 참가,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보리스 미쉘) 등 초대(중앙통신·중앙방송)

- 2012년 대회 이후 2016년까지 전략계획 목표와 연간 활동계획 이행 정형 총화, 적십자회 인도주의 활동의 확대발전 문제들 토의
- 총결기간 北 적십자회 예산집행 정형이 총화 되었으며, 규약 수정
- 2020년까지 전략계획과 예산 토의 및 새 지도기관 성원들 선거

* 리충복(「北赤」 위원장), 「北赤」의 "2016년까지 전략계획 수행을 위한 전망목표들(2012년 적십자 대회 시 심의·채택) 달성" 自評 및 성과(각종 질병 예방으로 인민들의 안전한 생활 등) 선전(중앙통신)
* 北 적십자회 창립 70주년 기념모임 진행(10.19, 천리마문화회관), 강지영 위원장과 리호림(적십자회 서기장, 연설) 등 참가(중앙통신)

- 北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창립 70주년 연회 마련(10.19)

■ 전국 의학과학 토론회(김정일 저작 '인민보건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하여' 발표 5주년 기념, 2011.10.7) 진행(10.18~19, 인민대학습당), "많은 의학과학 논문"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천마광산(평안북도) 선광장 완공(광물 생산 1.5배로 장성 토대 마련) 조업식, 10월 19일 현지 진행(중앙통신)

■ 양강도 갑산군 삼일 협동농장에 金 父子 형상 모자이크 벽화 건립(중앙방송)

■ '北 어린이 후원협회', 외국 사회단체들(세계 면역 및 왁찐(백신)동맹 등)과 어린이 선천성 심장질병 치료 관련 기술교류 협조 교환 등 "어린이 건강증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중앙통신)

■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림집 골조공사 결속(중앙통신)

10.20(목)

■ 김정은 黨 위원장, 함북 북부 피해지역 유치원·탁아소·인민병원 등에 '담요' 지원(중앙방송)

■ 「직총」 제7차 대회 기념사진 전람회 개막식, 10월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黨 부위원장), 주영길(직총 위원장, 개막사), 직맹 일꾼들, 노동자들 참가

■ 北, 김정일 전집 제15권 출판(중앙통신)

- 주체60년(1971)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 한 담화·연설·결론 등 83건의 저작들 수록

10.21(금)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제7차 대회 기념 직업동맹 사업성과 전시회(10.21), 리일환(당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제3차 전국 버섯생산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기술 강습(10.20),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중앙통신)

■ 평양 외국어대학·평양 인쇄공업대학 등 6개 대학, 원격 교육대학 새로 설립(중앙통신)

■ 北, 함북 북부 피해지역에 80여 개 학교·유치원·탁아소 건설 추진(중앙통신)

10.22(토)

■ 김기남·최태복(黨 부위원장),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직맹 일꾼·노동자 등) 숙소 방문(10.22) 격려(중앙통신)

*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 10월 22일 평양 도착(黨 부위원장 최룡해 등 평양역 출영)·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중앙방송·중앙통신)

■ 장자산 혁명사적관(자강도 강계시) 창립(1976.10.22) 40주년 기념 보고회(10.22)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희천 혁명사적관 창립(1976.10.21) 40주년 기념 보고회(10.21) 진행(중앙방송)

■ 함경남도, 10만여 ㎥ 성토 공사·44만여 ㎥ 암반 까내기 공사 및 40㎞ 구간 도로 확장 등 "가을철 국토관리사업" 성과(중앙통신)

* 인민군 군인들, 20일 남짓 기간에 504세대 살림집 골조공사 결속 및 10월 20일까지 300㎥ 이상 지붕 목조공사 및 10월 21일 3만 2,000㎡ 내부 미장공사 결속(중앙방송·노동신문)

* 각지 3대혁명 붉은기 단위들의 '증산 및 북부지구 지원(2·8 직동 청년탄광, '100일간 석탄 생산목표 100.3%·식량·수천 점 생활필수품' 등)'(중앙통신)

■ 北 여자 축구, 2016 FIFA U-17 여자 월드컵 결승경기 일본전(10.22)에서 5:4 승리(승부차기) 및 우승(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 최춘녀(女, 평안북도 의주군 거주)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10.23(일)

■ 「직총」 7차 대회 참가자들, 10월 22일 최룡해(黨 부위원장) 와 함께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관람(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기념' 전기 기관차 증정식, 10월 23일 김종태 전기 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직총」 7차 대회 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혁명사적비 '만대에 빛나라 불멸의 업적이여' 준공식, 10월 23일 자강도 장강군에서 진행(중앙통신)

■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 야영 시작 모임, 10월 21일 진행(중앙통신)

- 함북 북부 피해지역 학생소년들도 야영 시작

10.24(월)

■ 당 중앙위 기관지 '근로자' 창간(10.25) 70주년 기념보고회(10.24), 김기남(당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 10월 24일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 사적지 등 평양시내 참관(중앙방송)

■ 교육위원회, 함북도 북부 피해지역 교육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 적극 추진(중앙통신)

- 강·하천들의 위험 개소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는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

■ 제13차 전국 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10.24~28), 10월 24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개막(중앙통신·중앙방송)

■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10.24),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北, '약전 해설서' 편찬(중앙통신)

- 해설서에는 北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광범히 이용하고 있는 880여 종의 의약품에 대해 서술되어 있음.

10.25(화)

■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단 귀환(10.25), 김영철(黨 부위원장)·리룡남(내각 부총리)·리종무(체육상) 등 평양 국제비행장 출영 축하 및 선수단 카퍼레이드·만수대언덕 金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평천혁명사적지·조국해방전쟁 사적지·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과학기술전당·중앙계급 교양관 등 참관 및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만경대 혁명사적지에 植樹(중앙통신·중앙방송)

■ 망양나루 혁명사적지(함북도 회령시) 원상복구(중앙통신)

■ 왕재산 예술단 순회공연, 10월 19일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 건축종합대학 연구사들, 시멘트 신속 분석체계 개발 도입하여 '시멘트 질의 확고한 보장 및 증산'에 기여(중앙통신)

■ 마식령 샘물(pH 7.2 약 알카리성, 2013.8 발견)·대화봉 샘물(pH 7.2 약 알카리성, 1974 발견),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중앙통신)

10.26(수)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 벽화, 천성 청년탄광·신성천 기관차대·벽성군 대성협동농장에 각각 건립 및 준공식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국가체육지도위, U-17 여자 월드컵 우승 여자 축구선수단 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여 환영 연회(10.26, 옥류관) 마련(중앙통신)

- 최룡해(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축하 연설) 등 참가

■ 제27차 전국 정보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10.26), 최태복(黨 부위원장) 참가 下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1,300여 건의 조작체계용 응용 프로그램들 출품

* 전국 제약 및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0.25~26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전국 수의 축산 부문 과학기술토론회, 10.25~26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중앙통신)

* 감자 채종에 대한 민족토론회, 10.25~26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 과학연구소에서 진행(중앙통신)

- 감자 채종체계를 확립하고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해설

■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체육인들(제13차 인민 체육대회 기간), 공화국 새 기록 수립 선전(중앙통신)

- 10m 공기보총 사격선수들의 남자 단체경기, 10m 이동목표 혼합사격 남자 단체경기, 활쏘기 경기, 남자 역기 94k급 경기

■ 회령시 피해 복구 지역, 1,760세대 살림집들과 10여 개의 학교·유치원·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 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추진(중앙통신)

10.27(목)

■ 「직총」 제7차 대회, 10.25~26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대회에서 4개 의정 승인(1.「직총」 중앙위 사업총화 2. 중앙검사위 사업총화 3. 규약 개정 4. 중앙지도기관 선거)

* 김정은 黨 위원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10월 25일 서한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전 인민적 총진군에서 노동계급이 주도적·선도적 역할 담당 수행, 직업동맹 사업 개선 강화, 철저한 당의 유일 영도체계, 사상 교양사업 집중, 조직생활 집중 등 주문

■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 서한(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맹 조직들의 과업)' 관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궐기모임(10.27),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당 부위원장), 주영길(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

■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의 생일 축하모임(10.27), 4.25여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함북 온성군 남양지구 피해 복구 지역, 살림집 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중앙통신)

■ 전국 석탄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10.26~27), 평성 석탄공업대학에서 진행(중앙통신)

■ 전국학교 청년동맹, 소년 조직들과 학생 청소년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10.27),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 고급중학교에서 진행(중앙통신)

10.28(금)

■ 김정은,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단위들에 '감사' 전달(중앙방송)

■ 평양 육아원·애육원 원아들에게 밤·잣 전달(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73호(10.21),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에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등)·26호 모범기대 영예상(평양 연극영화대학 등)' 수여(중앙방송)

■ 北 중앙은행 창립('46.10.29), 70주년 기념보고회, 10월 28일 진행(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발표·전시회(조선 과학기술 총연맹 주최) 폐막식(10.28, 국가 나노기술국)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현 시기 경제 강국 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나노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 자료들이 소개됨.

■ 2016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北 여자 축구선수들 축하 모임(10.28, 청년중앙회관) 및 여자 축구 선수단 성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수여(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적으로 '7만 여명의 청년들이 피해 복구 참여' 등 '청년들의 피해지역 복구 사업 열의 발휘' 치하 및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에 현대적인 강냉이 가공공정 새로 조성(중앙통신·중앙방송)

■ 「직총」 제7차 대회 참가자들, 연극(혈맥)·음악 무용이야기(청춘의 자서전)·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직맹 초급단체 예술소품 공연 관람 및 직업동맹 사업성과 전시회장·문수 물놀이장 방문(중앙통신)

10.29(토)

■ 김정은 당 위원장, 새로 건설된 용악산 비누공장(연 건축 면적 1만 8,400여㎡) 공개 활동(중앙방송·중앙통신)

- 황병서, 오수용, 안정수, 김용수, 서홍찬, 조용원, 마원춘 동행
- 김정은은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 제품의 가지 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했으며,
-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지 수와 생산량을 년차별로 늘이며 그 질을 철저히 담보할 데 대한 문제, 제품의 상표들을 더 세련시킬 데 대한 문제 등 과업들을 제시했음

* 김정은, 북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부엌세간들 전달 칭송(중앙방송)

■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김정은 서한의 기본 사상과 내용 체득 등), 10월 28일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위원장, 100살 장수자 김승옥(자강도 희천시 송지리 8인민반)에게 생일상 전달(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안의 여러 협동농장 농사실태 점검(중앙통신·중앙방송)

- 농작물 작황과 수확정형 구체적으로 점검
-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와 제13차 전국 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과학자·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 강조

■ 강원도, 북부 피해지역으로 다량의 교육기자재 수송(중앙통신)

- 풍금과 가구류 등 50여 종의 교구 비품과 30여 종의 실험실습 기자재,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의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90여 종 1만 7,190여 점

10.30(일)

■ 김정은 黨 위원장, 「직총」 제7차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김기남(黨 부위원장), 리일환(黨 부장), 주영길(직총 위원장) 참가

■ 「직총」 제7차 대회의 "성과적 진행" 自評 및 "백두의 혈통만을 알고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철저한 체현자, 관철자인 영웅적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있는 한 당 중앙의 절대적 권위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영웅적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은 총진군 대오의 앞장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해 나가자)

■ 2016년 가을철 장애자·애호가 탁구경기 진행(10.24~30,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 장애자·애호가 선수들과 北 체류 외국인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 군인들의 '무산군 피해 복구 지역에 새 주택지구 형성(80여 세대 살림집 골조 공사 완성·공공건물 10여동 마감단계 등)' 성과(중앙통신)

* 권영학 소속부대 등, 무산군 피해 복구 전투장에서 지난 24일까지 2,000여 세대 살림집 내·외부 미장공사 완공(중앙방송·민주조선)

10.31(월)

■ 안과 전문병원 '류경 안과종합병원(평양 문수지구)' 개원식(10.30), 최태복(당 부위원장, 개원사)·김수길·강하국(보건상) 등 참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의 강원도 현지지도('76년 10월말~11월초) 4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중앙방송)

■ '우리(北)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신심과 낭만으로 뚫고 나가는 혁명적 낙관주의의 체현자, 신념의 강자들'이라며 '혁명적 낙관주의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와 같은 충실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낙관주의의 근본원천)

■ 평양 버섯공장 준공식(10.31), 박봉주(내각 총리, 준공사)·곽범기·로두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3차 인민체육대회 폐막식(10.31), 리종무(체육상, 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 체육관에서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함북 회령시 오봉지구 피해 복구 지역, 990세대 살림집과 공공건물 지붕 철판 씌우기 및 외장재 바르기 작업 완료(중앙통신)

■ 금성학원·금성 제1중학교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10.31),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1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중앙통신)

* 금성학원·금성 제1중학교 창립 50주년 기념 교육과학 성과 전시회(10.31),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과학홀에서 진행(중앙통신)

■ 농업과학원, 감자 바이러스 진단용 효소제 개발(중앙통신)

대남동향

10.01(토)

■ 대통령의 장·차관 워크숍·네덜란드 총리 정상회담(9.24, 27) 대북 발언(北 핵실험·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협·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등)에 대해 '북핵을 걸고 안보위기 소동 목적은 최악의 통치위기 모면'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위기모면을 노린 산송장의

필사적 몸부림)

* 남한은 “총체적 파국위기”라며 이는 “박○○ 패당의 친미 사대정책, 매국반역 망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사대와 굴종으로 얻을 것은 수치와 죽음뿐이다)
* 朴 대통령의 北 핵실험 등 안보위기 강조는 ‘내년 12월 대선에서 보수패당의 재집권 실현 기도’라며 남한 주민들의 ‘재집권야망 저지, 단호한 심판’ 선동(평양방송/보수패당의 재집권 야망을 깨버려야 한다)

■ 남한에서 ‘10월 항쟁(‘46.10.1)’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의 폭발, 애국적인 반미항쟁”이라며 ‘주한미군 철수·反정부 투쟁’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반미 애국항쟁)

■ 韓美 상호 방위조약 조인(‘53.10.1) 63주년 즈음 同 조약은 “분열의 지속과 북남 관계의 악화, 전쟁위험만 더 증대시켰다”며 ‘즉각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평양방송/분열의 지속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남조선-미국 호상 방위조약)

10.02(일)

■ 對北 선제 타격론·참수작전 부대 편성·韓美 정밀 타격훈련 등 거론 ‘모험적인 군사적 광기는 정세를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단 섬멸의 불을 토하면 제일 먼저 죽을 것은 미국이고 순식간에 불바다로 화하고 완전 잿더미에 묻힐 곳은 남조선 땅’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위험수위를 넘어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선제 타격 광기에 경종을 울린다)

■ 韓美 상호 방위조약 체결(‘53.10.1) 63주년을 맞아 이 조약에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군사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음모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은 철폐되어야 한다)

■ 국제무대들에서 對北 제재 강화 주장 관련 ‘핵 보유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뒤바뀌는지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조소(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개꿈 속을 헤매는 얼간망둥이들)

10.03(월)

■ ‘탈북 권유’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10.1)에 대해 ‘골수에 꽉 들어찬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독기’라며 ‘역도의 대결 광기가 도수를 넘을 대로 넘었다’고 대통령 실명 맹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극악한 대결 망발을 늘어놓은 박OO 역도의 교활한 속내를 까밝힌다)

■ 10·4 선언 발표 9주년에 즈음하여 ‘10·4 선언은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실천 강령’이라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 선언의 생명력은 영원하다’고 강조(중앙통신)

10.04(화)

■ 「10·4선언」 발표 9주년 즈음 "오늘 조국통일 위업은 엄중한 난관과 시련에 부딪히고 남북 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 주장(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9.20 UN본부, 獨·英 등 외교장관과 '양자회담')·김홍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9.27, 제60차 IAEA총회 기조연설)의 '북핵 외교'에 대해 "反北 압박 구걸놀음"이라며 "괴뢰패당이 갖은 발악을 해도 핵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우리(北)의 전략적 지위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폄하(중앙통신·민주조선)

* 대통령(해외 방문기간)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韓美日 외교장관 회담) 및 韓美日 국방부 장관 '전화대화'에 대해서도 "괴뢰 따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北)의 전략적 지위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중앙통신 논평)

■ 北 조은정(평양시 모란봉구역 거주)·김춘호(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 종합진료소 의사)·강명진·손광(평양 빛섬유(광섬유) 통신케이블공장 부기사장·과장), 朴 대통령의 '탈북유도' 등 국군의 날 기념사 막말 비난(평양방송·중앙방송)

10.05(수)

■ 韓美 '정밀타격' 연습 진행 관련 '북침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책동으로서 용납못할 평화 파괴행위'라며 '무모한 선불질을 해댄다면 무자비한 핵 보복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韓美 비난 및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무모한 망동)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정밀타격·참수작전' 훈련을 거론 '적들의 군사적 광기에 대처한 대응방식은 이미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만단의 선제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라며 '심사숙고 하라'고 위협(중앙통신/우리의 경고에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다)

10.06(목)

■ 5차 핵실험 후 한미의 대북제재 발언들에 대해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미국과 박OO 패당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北)의 초강경 대응 의지는 천백배로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제재 소동은 멸망에 직면한 자들의 최후 발악)

■ 유엔 총회에서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에 대해 '우리(北)의 핵 무력 강화를 막을 수 없게 된 악몽과 패배감에서 나온 추태'라며 '괴뢰들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버림을 받고 저들의 가련한 처지만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패배자들의 얼빠진 넋두리)

10.07(금)

■ 【「조선 불교도연맹」 대변인 담화(10.7)】 '사드' 배치결정 성주 골프장의 원불교 성지 인접 관련 "원불교 성지가 유사시 열강들에 의해 핵전쟁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된다"며 '남한 종교인들의 사드 저지·미군철수 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종교인협의회」 대변인 담화(10.7)】 "종교 성지가 1차적인 타격대상이 되고 전쟁마당으로 화하게 된다"고 남한 종교인들의 '사드 배치 불용 및 미군철수 투쟁 전개' 재차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의 '對北 제재·압박'에 대해 "청맹과니들의 부질없는 헛수고,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며 "무적의 군력이 총동원되게 될 판가리전에서 미국과 괴뢰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중앙통신·노동신문/악의 무리는 종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10.08(토)

■ 朴 대통령의 '한미 동맹 더욱 견고히' 발언 거론 '숭미 사대관념에 푹 빠져있는 괴뢰들'이라며 '남조선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침략군을 철수시키고 동맹을 철폐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도대체 누구에게 필요한 동맹인가)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10.8)】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의 對北 발언' 등 거론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대결광기를 고취했다'며 '매국역적의 만고죄상을 고발하다'고 막말과 폭언의 백서 발표(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對北 압박공조' 지지 발언 등 관련 '외세를 꺼들여 벌리는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소동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민족을 망신시키는 궁상스러운 비럭질을 작작하라'고 요구(중앙통신·노동신문/매국 역적들의 궁상스러운 비럭질)

10.09(일)

■ 북한 수뇌부 정밀 타격 등 한미의 연합훈련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北)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는 경거망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중·자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평양방송/경거망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이다)

■ 北, 10월 9일 난수방송(0시 15분, 금년 들어 총 8회) 재개(평양방송)

10.10(월)

■ 우리 軍 당국 등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서울 수복 기념' 등 일련의 행사 진행에 대해 "역겨운 추태극·치졸한 광대극, 6.25 패전을 가리워 보려는 발광"이라고 조소(중앙

통신·노동신문/그 어떤 광대극으로도 처참한 패전의 역사와 식민지 고용군의 가련한 처지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

* 국군의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 16' 공중정밀 타력훈련 참가 등 훈련실시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국면에로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행위이며, 패배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일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대통령과 국무총리·외교부 장관의 對北 발언(국제적 고립 및 핵 도발 억제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 제재 압박 공조 등)에 대해 '反北 악담질·제재압박 구걸놀음으로 오히려 저들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10·4 선언」 발표 9주년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진행(10.6~7, 중국 심양) 및 '공동결의문' 채택(중앙방송·중앙통신)

10.11(화)

■ 황OO 국무총리의 對北 발언(北 핵 위협에 대응한 확고한 방위능력 등) 관련 '대결망동을 합리화하여 도발억제의 간판 밑에 반공화국 압살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사복 입은 호전광의 푼수 없는 객기)

10.12(수)

■ 우리 정부의 '안보 위기' 주장은 '북침전쟁 연습을 비롯한 온갖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괴뢰 역도가 노리는 것은 안보 위기를 광고하면서 보수 세력을 집결시켜 임기 말 집권 안정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위기 모면을 노린 비열한 안보 소동)

■ 한미 연합 해상훈련(10.10~15)에 대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박OO 패당은 공화국에 대한 선불질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북침 선제타격은 자멸의 전주곡)

10.13(목)

■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10.13)】 남한 정부의 '종북세력, 불순세력 척결 간판 밑에 파쇼탄압이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 및 '반정부 투쟁 전개'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 朴 대통령의 "北 도발설(심각한 도발·중대한 위협·도발 예상 등)"은 "도발자의 감투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연극, 미국산 앵무새들의 상전 따라 외우기"라고 왜곡(중앙통신·노동신문/박○○ 역도의 도발 타령에 깔린 흉심을 발가 본다)

10.14(금)

■ 北, 10월 14일 난수방송(01시13분~21분 1회 반복, 금년 총9회) 재개(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朴 대통령, 안보상황 점검회의' 주재 등 거론 '안보위기 소동으로 흩어진 보수 세력들 규합, 통치기반 수습, 재집권 실현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꾀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괴멸을 불러올 안보위기 소동)

■ 【「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담화(10.14)】 南 근로자들 대규모 파업과 사드배치 철회 시위 등 거론 '민주와 인권, 민생의 불모지를 만들고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는 박OO 패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기자동맹」중앙위 대변인 담화(10.14)】 '보수언론들이 모략여론들을 내돌리며 존엄 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

10.15(토)

■ 【「반제민전」 중앙위 호소문(10.15)】 남한의 철도노조 총파업·백남기 농민 사건·사드배치 반대 투쟁 등을 거론하며 '남녀노소 가림 없이 항쟁의 거리로 떨쳐나서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OO 일당'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반역의 무리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기 위한 투쟁에 총 분기해야 할 때'라고 '반정부 투쟁 호소문'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여맹」 중앙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15)】 남한의 어린이 학대 건수(최근 5년간 4만 999건)를 거론하며 '남조선에서의 어린이 학대 행위는 썩을 대로 썩고 병들 대로 병든 남조선의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라며 '남조선의 어머니들과 여성들은 박OO를 지체 없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라고 선동(중앙통신)

■ 대통령의 영상 국무회의(10.11)에서의 대북발언(도발, 강력한 제재)에 대해 '악에 받친 독설, 맥 빠진 푸념'이라며 '박OO 패당은 머지않아 온 민족의 규탄 속에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청와대 산송장의 맥 빠진 푸념질)

■ '최근 미국과 괴뢰들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연습들은 북침 선제타격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이 사소한 선제타격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백두산 혁명 강군의 즉시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섬멸적인 대응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 '10월에 들어와 매일 같이 감행되는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해상 침범 행위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계속되었다'며 '남조선 괴뢰들이 고수해보려고 발광하는 북방 한계선은 도발자들의 명줄을 조이는 죽음의 계선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10.15,중앙통신)

10.16(일)

■ 윤OO 외교부 장관의 '북핵 국제공조 외교 및 北 인권 문제와 연계(북핵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군사적 대응' 등 발언을 "동족대결 광증·북을 해치려는 발광증·사대매국 질환 등 미친 병세"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대결 미치광이 윤OO의 미친 병세를 진단한다)

* 국무총리와 외교·통일부 장관 및 통일부 차관의 방한 UN 주재 美 대사(서맨사 파워) 면담 및 '북핵 대응 방안 및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대해 "극악한 동족 대결광, 반공화국 구걸 광대극·비굴한 구걸 청탁"이라고 조소(중앙통신·민주조선)

■ '부마 민주항쟁('79.10.16)' 37주년 관련 남한의 "사대매국 정치·파쇼 독재통치·반통일 대결책동은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장애"라며 '반정부 투쟁'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항쟁 용사들의 넋은 과감한 투쟁을 부른다)

10.17(월)

■ 【「전국연합 근로단체」성명(10.17)】 朴 대통령의 탈북 발언(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과 '지휘부 제거작전' 등 거론 '체제를 전복하고 흡수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발악으로 낙인하며 역도의 명줄을 끊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 성전에 돌입한다'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국무회의(10.11)에서의 대통령 對北 발언(北 도발 가능성과 실제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 등) 관련 '분노한 민심의 화살을 딴 데로 돌리고 심각한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필사적 몸부림'이라고 비난(중앙통신/청와대 악녀의 필사적 몸부림)

■ 황OO 국무총리의 對北 발언(새로운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등 거론 '외세 의존에 환장하고 구걸병에 단단히 걸린 동족 대결광들의 역스러운(역겨운) 망동'이라며 '조용히 역사의 심판대 우에 오를 시각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구걸병자의 역겨운 추태)

■ 통일부 장관의 통일행사(통일노래 경연, 통일음식 만들기) 참가 등 거론 '해괴망측한 놀음까지 벌려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며 '분노한 민심과 온 민족의 저주 속에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청와대 노복의 추악한 정체를 해부한다)

10.18(화)

■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18)】 대통령의 '탈북 권유' 등 대북 발언(北 붕괴, 체제 균열 등)에 대해 '통제 불능의 정신착란증'이라며 '대결 미치광이의 얼빠진 넋두리는 가장 비참한 장송곡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 실명 맹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박OO가 우리 공화국에 찾아와 직접 보고 감탄까지 하였던 사실을 잊었다면 우리(北)는 이제라도 다시 초청하여 천지개벽된 평양의 모습도 보여주고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는 북부 피해 전역도 참관시켜줄 수 있음.

■ 대통령 사저 물색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재집권 실현과 제살궁리에 골몰하기 시작한 박OO의 검은 속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박OO를 지체 없이 청와대에서 끌어내어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선동(중앙통신/정치 송장의 검은 속내)

* 대통령의 영상 국무회의(10.11)에서의 대북 발언(도발, 강력한 제재)에 대해 '청와대 마녀의 비명소리'라며 '박OO가 도발과 제재를 떠들어대고 있는 데는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중앙통신·민주조선)

■ '동족 대결로 명줄을 이어가려는 반역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며 '동족 대결 정책이 총 파산의 운명에 처한 박OO 패당에게는 죄악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의 길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출로가 있을 수 없다'고 '대북정책 전환'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총파산에 직면한 반공화국 대결 정책)

■ 美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참가 韓美 연합 해상훈련에 대해 '최악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과 박OO 패당은 우리(北)의 핵 보복 타격으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북침 선제타격을 노린 무모한 광란)

10.19(수)

■ 【「민화협」 공개 질문장(10.19)】 10월 19일 朴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 및 공포정치' 등 발언에 대해 '북의 대응 타격으로 남한 전역이 불바다로 변할 경우, 北의 변모된 현실 목격 위한 訪北 용의' 입장 표명 요구 등 '공개 질문장(6개항)' 발표(중앙방송·중앙통신)

■ 朴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 등 북핵 해법' 발언을 "앙천대소할 노릇, 무모한 광기"라고 조소 및 "우리(北)에 대한 선제타격은 곧 미국과 괴뢰 역적패당의 종국적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천하의 백치 박○○ 역도의 잠꼬대 같은 북핵 해법 타령)

* 대통령의 對北 발언(북한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닌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인 위협) 등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

■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근로자들과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성과 연봉제 반대 투쟁·100일 철야농성'을 거론하며 "박○○ 패당에 대한 원한과 분노 폭발"이라며 '반정부 투쟁 강화'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반역정권 타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한미 「합참」 의장의 제41차 군사위원회 회의 진행(10.13, 美 국방부)에 대해 "북침전쟁 모의판, 반공화국 핵 선제공격 쑥덕공론"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의 '3축 체계'의 2020년대 초까지 조기 구축 합의는 "제도통일 실현 위한 북침 전쟁체계"라고 비난(중앙통신)

* 서울 창신동·명륜동 일대에 10월 18일 '北 찬양 삐라 살포' KBS 방송 인용 보도(중앙통신)

10.20(목)

■ 【「국가 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10.20)】 유엔 총회 제4위원회 회의 南 대표 발언 거론, '공화국의 기상과 위용에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증'이라며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인권연구협회」 성토문(10.20)】 '인권 문제를 반공화국 제재압살의 마지막 주패장으로 삼으며 군사적 선제타격의 합법적 명분을 만들어 보려 하고 있다'고 韓美 비난 및 '北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조치 철회' 요구(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 인권기록 보존소 개소식 관련 '인권 문제를 더욱더 여론화, 국제화하여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체제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망동'이라며 '남조선의 비참한 실상을 가리워 보려는 인권 범죄자들의 광대극'이라고 비난(중앙통신/쓰레기 광대극)

10.21(금)

■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10.21)】 청와대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불법무법의 탄압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문예인들은 박OO 무리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며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라고 '반정부 투쟁' 선동(중앙통신·중앙방송)

10.22(토)

■ 대통령 등 북핵 위협·비상사태 등 '北 도발' 강조 발언들에 대해 "북침전쟁 도발 전주곡, 통치위기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책임 전가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北 도발 타령은 북침 전쟁의 전주곡)

■ 국무총리 및 외교·통일·국방부 장·차관의 訪韓 유엔 주재 美 대사·전 美 국무부 정무차관 등 접견 및 '북핵문제' 등 논의에 대해 "동족압살을 구걸하는 추태, 식민지 주구의 비굴한 청탁놀음"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통일부 장관 對北 발언(10.12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특강, 지금 北에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 등)에 대해 '반통일 역적의 황당한 궤변, 대결악담'이라고 비난(평양방송/청와대 악녀와 함께 순장(殉葬) 해버려야 할 대결광신자)

10.23(일)

■ 北 난수방송, '21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 대학 금속공학 복습과제'(평양방송)

* 금년 들어 10회째 난수방송

■ 대통령 북핵 우려 발언 관련 '이것은 동방의 핵강국, 주체의 군사강국의 위력에 기겁하여 질러대는 가련한 비명소리, 패배자의 가냘픈 신음소리'라며 '역도에게 남은 것은 차려진 운명에 순종하여 황천길을 걷는 것 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궁지에 몰린 대결광녀의 가련한 비명)

■ 韓-美 대북 압박 관련 '경제제재를 가하든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든 모든 것에 다 준비되어 있다'며 '반공화국 제재와 압박소동의 종국적 파탄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억척불변이다)

10.24(월)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23)】 '문재인(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北 인권결의안 표결 개입설' 관련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며 '색깔론과 종북 소동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자멸행위로 될 뿐'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지난해 DMZ에서 일어난 북한의 지뢰도발을 다룬 연극 'DMZ 1584'(건군 제68주년을 맞아 한국 연극배우 협회가 제작) 공연에 대해 '8월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고의적이며 난폭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문화 예술인들은 동족대결에 추종하지 말아야 하며 연극 공연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대결 광대극의 종착점은 죽음과 파멸뿐)

■ 대선을 위해 새누리당의 외부인사 영입론 등을 거론하며 '최근 괴뢰 보수패당의 재집권 책동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박OO 패당의 재집권 소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적 망동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보수 세력의 재집권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 '北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언(결의 위반, 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재고 등)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적대세력이 우리(北)의 위성 발사에 대해 걸고들수록 주체위성들은 우주공간으로 계속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 행사)

10.25(화)

■ 대통령과 우리 정부 관계자의 북한 체제문제 언급(탄압·참혹한 실상 등)·인권문제 제기(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인권기록센터 개소)에 대해 "체제통일 실현 망동, 남한의 비참한 현실을 가리워 보려는 광대극"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現 남북관계 파국·한반도 긴장국면 조성 원인은 "미국의 反北 고립 압살 정책과 박○○ 패당의 동족대결 책동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및 '동족대결 정책의 총파산'을 주장(중앙통신 ·노동신문/대결정책의 총파산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10.26(수)

■ 【「재북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대변인 담화(10.26)】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6·25 전시 납북자 기념관 착공식 기념사(전시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륜과 천륜의 문제) 거론 '자진 의거입북한 사람들을 전시납북자로 날조하며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

■ 다국적 기뢰전 훈련(10.15~22) 실시 관련 '부질없는 불장난 소동, 무모한 도발 객기'라며 '외세의 등에 업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식민지 주구의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 및 '도발을 걸어온다면 선군총대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겁에 질린 자들의 부질없는 전쟁 광기)

10.27(목)

■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박OO와 그 패당의 통치 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박OO와 청와대·내각은 총사퇴하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동족대결과 악정으로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패당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자)

■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北 유엔 인권결의안(2007년) 개입' 논란 관련 '괴뢰 보수패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종북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청와대로 쏠리는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고 비난(노동신문/불순한 속심만 드러낸 종북 모략 소동)

10.28(금)

■ 北, 10월 28일 난수방송(01시 15분, 금년 들어 총 11회) 재개(평양방송)

■ 우리 정부의 '反北 인권모략 소동(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북인권법' 시행·北 주민 탈북 유도 발언)'을 주장하며 '자주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제도전복을 노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의 간판을 단 극악무도한 도발)

■ 국방부의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의 광복군 활동' 약력 명시(37주기 추모식 행사 보도자료)에 대해 '친일 매국노를 애국자로 둔갑시켰다'며 "박○○는 유신 독재자와 같은 비극적 말로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막말(중앙통신·노동신문/달리될 수 없는 유신 후예의 비극적 말로)

  * 韓美 공군 특수부대의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훈련(10.22)을 "북의 핵심시설 파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北 유엔 인권결의안(2007년) 개입' 논란을 "역적패당이 통치위기를 수습해 보려는 서푼짜리 모략극, 의도적으로 꾸며낸 비열한 조작극"이라고 주장(중앙통신/모략소동은 제 무덤만 깊이 판다)

■ '최순실 사태' 관련 남한 언론 인용, 상세 보도(중앙통신)

–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성균관대학교 교수들 시국선언·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10.29(토)

■ 국방부의 군사분계선 DMZ 내(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초소부근) 대형전광판(높이 10m×길이18m) 신설(10.27 부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가고 있다"며 "직접조준 타격 포함 무자비한 보복" 위협(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한 우리 대표의 발언 거론 '회의장을 소란케 하는 난동으로 기자들 모두가 비난했다'고 왜곡하며 '해괴망측한 추태는 히스테리적 발작에 불과하다'고 비난(중앙통신)

10.30(일)

■ 韓美 제4차 외교·국방장관(2+2) 회의·제48차 연례 안보협의회의(10.29·20, 워싱턴) 및 '확장 억제 전력 협의체' 설립 합의에 대해 '反北 압살 공모결탁으로 對北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핵전쟁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모의판)

■ '최순실 파문' 관련 中(신화통신)·美(NYT)·日·英 등 세계 언론 보도 및 서울·지방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해외 동포들의 시국선언 등 인용 보도(중앙통신·중앙방송)

10.31(월)

■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관련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며 가장 우매한 박OO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백한 논증'이라며 '오늘의 비극적 사태는 역사의 필연이며 박OO 정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특대형 정치추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박OO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평한다)

대외동향

10.01(토)

■ 美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사업(북한 인권단체·연구기관들 대상 3개 분야 265만$ 지원) 공개모집(인권유린 자료수집, 보고서 발간 등)' 발표 관련 "새로운 인권광대극 연출,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국제화·극대화"라고 반발(중앙통신/현상모집의 추악한 정체)

■ 일제의 '총독정치(1910.10.1, 선포)'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목적으로 감행된 야만적인 통치였다"고 규탄 및 일본의 '사죄와 배상' 촉구(중앙통신/일제의 야만적인 '총독정치'로 조선인민이 당한 재난과 고통)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최희철 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 국장), 이란 공식 방문(9.26~30) 및 이란 외무성 부상 방문 등(외무성 동아시아 및 오세안주 담당 총국장과 회담) 결과 보도(중앙통신)

- '현 조선반도 정세가 통제 불능 상태에로 벗어져 나가고 있는 근원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북 적대시 정책에 있음'
- '이란과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중시하고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나는 것은 북의 시종일관한 입장임'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1일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드 부하리)에게 '나이지리아 독립 56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직총」 대표단(단장: 김동선 부위원장), 남아프리카(세계 직업연맹 제17차 대회 참가) 및 이란 방문차 10월 1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러시아·중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스페인 대표단(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국제학술토론회 참가), 10월 1일 귀국(중앙통신)

10.02(일)

■ 김영남, 기니 독립 58돌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10월 2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위 통일자전거 행진단(단장: 최수봉 공동 부위원장,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부의장), 10월 2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10.03(월)

■ '노동당 창건'(10.10) 71주년에 즈음한 외국선박 선원들의 경축모임(10.3), 남포항에서 진행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중앙통신)

■ '조선의 핵은 민족부흥의 담보'라며 '나라의 자주권도 평화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으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은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의 핵은 폭제를 마스는 인민의 힘이며 민족 번영의 억만년 미래이다)

■ 북·남·해외 연석회의 중국 지역 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 행진단, 10월 3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10.04(화)

■ 일본의 '안전 보장 관련법' 채택 1주년 관련 도쿄 등 항의 집회 및 전문가들 조언(여러 나라에서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 등 對日 경계심 고조)을 강조하며 "일본이 이것을 무시하고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가닿을 종착점은 파멸의 무덤뿐"이라고 경고(중앙통신·노동신문/종착점은 파멸의 무덤뿐이다)

■ '10·4 선언' 발표 9주년 즈음 재중 동포들(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 위원회)의 '통일자전거 행진' 출정식(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진행 및 평양→「판문점」 도착, 판문각 앞마당에서 결의모임과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4일 레소토 왕국(*남부 아프리카 위치) 국왕(렛트시에 3세)에게 '레소토 독립 50주년'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黨 부위원장), 10월 4일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하마드 하산)와 담화 및 팔레스티나 대통령(마흐무드 압바스)의 김정은에게 보낸 당 창건 71주년 꽃바구니 인수(중앙통신·중앙방송)

■ '글린 포드' 영국 레이버당 대외관계委 위원, 10월 4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및 회원 대표단(단장 : 죠니 혼 공동이사장,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제2차 회의 참가)과 일본 후쿠오카縣 日朝 우호협회 대표단(단장 : 기타하라 마모루 회장), 10월 4일 각각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박경애(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종합대학 교수·캐나다-조선 지식교류 협력계획 소장)와 말레이시아·미국·중국·인도·영국 전문가들도 10월 4일 '지속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참가차 각각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10.05(수)

■ 유엔 인도주의사업 조정사무소·아동기금, 北 함북도 북부 지역 큰물피해 관련 "긴급 협조" 결정(중앙통신·중앙방송)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10월 3일 김정은에게 함북도 큰물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 발생 위문 전문(중앙통신)

■ '미국의 항시적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목적으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보유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연일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다져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국제적인 핵 주범 미국의 정체는 감출 수 없다)

* 마이클 멀리 전 美 합참의장 발언(對北 선제 타격) 거론 '침략전쟁 도발 준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며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주저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제2차 회의, 김창룡(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이사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5일 평양에서 진행(중앙통신)

- 제1차 확대회의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 제시
- 김일성·김정일 기금 회원 총회에서는 지난 기간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회원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수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 토의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마련(중앙통신)
* 총회 참가자들, 김정은에게 총회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 편지(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공동이사장, '김정은 꽃바구니'와 선물 김기남(黨 부위원장)에게 전달(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및 회원 대표단(단장: 죠니 혼 공동이사장), 10월 5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黨 중앙위 부위원장), 영국 노동당 대외관계委 위원(글린 포드)과 10월 5일 담화(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駐北 신임 이집트 대사(싸미흐 루트피 아브둘하디)와 10월 5일 담화(중앙통신)

■ 駐北 라오스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北-라오스 친선 '소신 남새 전문협동농장'(평양시 역포구역 위치) 친선노동 및 물자 지원(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대표단(단장: 강성은 부학장), 과학기술전당·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10.06(목)

■ 【「외무성」 대변인 담화(10.6)】 미국이 각국에 '北과의 외교·경제 관계 단절·격하 요청' 등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패배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며 '미국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北)의 생명을 노린 저들의 창끝이 오히려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아세안 위원회, 함북도 북부 피해 지역에 지원금 전달(중앙통신)

- 전달식에 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 대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지원금을 리길성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

■ 박봉주(내각 총리), 신임 가봉 수상에게 10월 5일 축전(중앙통신)

■ 주북 외교단, '당 창건'(10.10) 71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10월 6일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분냥 워라), 김정은에게 10월 6일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이집트 대사관 무관, 自國 군대절에 즈음하여 윤동현(인민무력성 부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10월 6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 주북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10·4 선언 발표 9주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36주년에 즈음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참관(중앙통신)

■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北·몽골 과장(알렉산드르 왈렌치노비치 워론조브),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북한 방문(중앙통신)

■ 일본 후쿠오카현 일조(日朝)우호협회 대표단(단장 : 기타하라 마모루 회장), 만경대 방문 및 과학기술전당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권광남), 10월 6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 기념 경축행사 참가「총련」조선대학교 대표단·재일조선 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10월 6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10.07(금)

■ 美 정부의 對北 제재 압박 강화에 대해 '우리에게는 제재가 절대 로 통하지 않는 부질없는 짓이며, 핵 강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자력 자강의 국방력 강화'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 美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주변 상공 연속 출현(10.7, 10.6)'은 "우리에 대한 미제의 핵 선제 타격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식의 선제 타격" 대응 강조(10.8, 중앙통신)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0월 7일 '총련 교육 일꾼대회(재일 조선인 중등교육실시 70주년 기념)' 관련 전체「총련」일꾼·재일 동포들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스위스 정부, 北 함북도 북부 지역 홍수 피해 관련 '對北 긴급협조 제공 결정'(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무관단(단장 : 장평 중국 대사관 국방무관), 10월 7일 北 '당 설립일(10.10)' 71주년 즈음 '김정은에게 꽃바구니·축하 편지'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계획·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성원들, 10월 7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나이지리아 대통령(무함마두 부하리), 10월 7일 주북 自國 대사(매모스 엘리샤) 통해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 10월 6일 김정은에게 축전(중앙통신)

■ '글린 포드' 영국 레이버당 대외관계委 위원, 만경대 소년단 야영소·평양 곡산공장·평양 어린이 식료품공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 및 회원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국가 선물관·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관(중앙통신)

* 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10월 7일 과학기술전당·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주체사상탑·국토환경 보호성 중앙양묘장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중앙재판소 대표단(단장 : 리명남 부소장), 10월 7일 러시아(국제법률연단 참가)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10.08(토)

■ 美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주변 상공 연속 출현(10.7, 10.6)'은 "우리에 대한 미제의 핵 선제 타격 광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식의 선제타격" 대응 강조(중앙통신)

■ 北 대표,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1위원회 연설을 통해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중앙방송)

-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국제 우주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우주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광활한 우주 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임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8)】 '美, 대학생 스네든 납치 의혹 여론화' 관련 '인권문제를 극대화하여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이라며 '미국의 억지 주장을 전면 부인,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중앙통신)

■ 김창렵 駐남아프리카 北 대사, 10월 4일 동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중앙방송)

■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委 통일 자전거 행진단, 만경대를 방문하고 국가 선물관과 과학기술전당 등도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통일 자전거행진 참가자들, 10월 5일 김정은에게 편지(중앙통신)

■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울화의 가족·일조우호 히로시마 현민의회,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이브라함 만투 위원장, 10월 8일 黨 설립(10.10) 71돌 즈음 꽃바구니 전달(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단장: 오다크 파울 마이컬 우간다 대통령부 선전국 부국장), 10월 8일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김정일 기금 이사회와 공동이사장 및 회원 대표단, 10월 8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대외관계위 위원, 10월 8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10월 8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인도, 영국의 전문가들

□ 日 후쿠오카縣 일조우호협회 대표단(단장: 기따하라 마모루 회장), 10월 8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10.09(일)

■ 에티오피아 대통령, 김정은에게 9월 20일 함경북도 홍수 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간다 독립 54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10월 9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대표단(단장 : 오다크 파울 마이컬 우간다 대통령부 선전국 부국장), 10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중앙통신)

■ 리용호(외무상), 신임 가봉 국무상 겸 외무상에게 10월 8일 축전(중앙통신)

■ 김창렵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北 대사, 10월 4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중앙통신)

■ 정일심 동포(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와 스위스-조선위원회, '당 설립' (10.10) 71주년에 즈음하여 10월 9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재중 조선인 총연합회 중남지구 협회,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모임을 10월 7일 중국 주재 北 대사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러시아·중국·쿠바·네팔·레바논 등 정계·사회계·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김정은에게 '北 정권 수립'(9.9) 68주년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편지(중앙통신)

10.10(월)

■ 미국을 "국제 테러 왕초, 국제 테러범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테러후원국"이라며 미국의 '반테러 정책의 이중 잣대' 비판 및 "미국이 침략과 지배주의 정책에 매어달리는 한 테러를 절대로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반드시 계산되어야 할 국제테러 왕초의 죄악)

■ 美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 세계' 구상을 "파렴치성·양면성의 극치"라고 '對北 핵무기 불사용 대상제외' 등 거론 비난하며 임기막판 '핵 선제 불사용 정책' 제시도 "제 죄악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조소(중앙통신)

■ 김정은 黨 위원장, 쿠바 내각 수상·라오스 주석·태국 국왕 및 인도·이집트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등 '北 정권 수립 68주년' 축전·축하 편지들에 대한 답전 발송(중앙방송·중앙통신)

■ 팔레스티나·시리아 대통령, 10월 10일 김정은에게 '黨 설립 71주년' 즈음 각각 축전(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인 체육연합회 대표단(단장: 리청경 상임이사회 이사장), 10월 10일 평양 도착(제13차 인민체육대회 참가)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방송·중앙통신)

10.11(화)

■ 日 당국이 '美日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한 것 관련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는데 가담하는 자들은 물론 뒷바라지를 해준 자들도 무사할 수 없다'고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사무라이 후예들의 어리석은 망동)

■ 【주요인물 동정】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北 준비위 대표단(단장: 박경일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10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위 통일 자전거 행진단, 10월 11일 귀국(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권광남), 10월 11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 10월 11일 '김정일 선물' 해당부문 일꾼에게 전달(중앙통신)

10.12(수)

■ 北-러 외교관계 수립(10.12) 68주년을 맞아 '현 시기 北-러 친선 협조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며 '北-러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더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北) 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좋게 발전하는 朝露 친선 협조관계)

*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 北-러 외교수립 68주년에 즈음하여 10월 12일 대동강 외교단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 신홍철(외무성 부상), 오룡철(대외경제성 부상),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원장) 등 초대

■ '미국이 초강도 제재로 우리(北)를 압살해보려는 것은 개꿈에 불과하다'며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우리를 핵무력 고도화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는 미국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적도기니 독립 48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10월 12일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쿠바 대사, '당 설립'(10.10) 71주년에 즈음하여 리수용(당 부위원장)·류명선(당 부부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10월 12일 自國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 주북 시리아 대사도 리용호(외무상)·전용남(청년동맹 1비서)·리창근(당 부부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10월 12일 自國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중앙통신)

10.13(목)

■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 10월 13일 리수용(당 부위원장)·김승두(교육위원장)·주영길(직총 위원장) 등 초대 下 '北 노동당 설립 71주년' 연회 개최(중앙통신)

* 주북 경제·무역참사단, 10월 13일 '北 노동당 설립 71주년·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0주년' 계기 당 창건 사적관 참관(중앙통신)

* 멕시코 노동당 전국 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10월 4일 김정은에게 '北 노동당 설립 71주년' 축전(중앙통신)

■ 주북 캄보디아 대사(옵 씨싸와다)와 대사관 성원들, 10월 13일 황해남도 신천군 北-캄보디아 친선 백석 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인 중등교육 실시 70주년 기념 총련 교육일꾼 대회(10.8, 도쿄 조선문화회관), 허종만(「총련」 의장, 보고) 등 참가 下 진행 및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조성택), 10월 13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10.14(금)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0.14)】 韓美 공군 연합훈련에 영국 전투기들 파견 결정 관련 '새 전쟁도발 책동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적대행위이며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및 '참가 취소' 요구(중앙통신)

■ 김영남, 작별 방문한 駐北 아제르바이잔 대사와 10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인 체육연합회 대표단(단장: 리청경 상임이사회 이사장), 만경대 방문(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단장: 김복자, 김룡원), 10월 14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단장: 조성택, 김복자, 김룡원), 10월 14일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

10.15(토)

■ 김정은 黨 위원장, 태국 국왕(푸미폰 아둔야뎃) 서거와 관련해 同國 왕세자(마하 와치랄롱꼰)에게 10월 15일 조전(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리용호(외무상)도 태국 수상과 외무상에게 15일 각각 조전(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성명(10.15)】 러셀 美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김정은 핵 공격 능력 가진 순간 바로 죽을 것)에 대해 '우리(北)에 대한 최고의 도전이며 선전포고를 실행에

옮기는 적대행위'라며 '미국은 최고존엄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며 오바마는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중앙통신)

■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B-1B) 한반도 출격과 조기경보 위성(DSP)의 한반도 전역 24시간 감시 등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완전 실패에 직면한 오바마 행정부의 단말마적 발버둥질'이라며 '우리(北) 혁명무력은 놈들이 움쩍하면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가할 만단의 선제 타격 태세에 진입한 상태'라고 위협(중앙통신/완패한 정권의 최후 발악)

■ 【주요인물 동정】

- 日-朝 우호 교토네트 대표단(단장 : 쯔노가이 유다카 부회장), 10월 15일 평양 도착(중앙통신)

10.16(일)

■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해리 해리스)·일본 방위상(이나다 도모미) 회담(10.5, 日 방위성) 발언(亞-太지역 평화·번영 기초는 美日관계 등)'에 대해 "미일 동맹은 재앙만을 불러오는 침략동맹, 전쟁동맹"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적 논리)

■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개선문·평양 중등학원·중앙동물원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 日朝 우호 교토네트 대표단, 10월 1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10.17(월)

■ '北 대표,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 연설(10.13)'을 통해 '미국이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개발을 가로막아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과 덴마크·핀란드·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단, 10월 17일 北 적십자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돌 기념모임에 참가차 평양 도착(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조선인 체육연합회 대표단(단장: 리청경 상임이사장), 10월 17일 제13차 인민체육대회 참가 후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대표단, 10월 17일 귀국(중앙통신·평양방송)

10.18(화)

■ 【「국제문제연구소」 고발장(10.18)】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조작하고 새로 꾸미려고 하는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적법성과 도덕성·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범죄적 문서들'이라며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고발장' 발표(중앙통신)

■ '미국이 우리(北)에 대한 핵위협 공갈과 제재 압박에 매여 달릴수록 우리 핵 공격 수단들의 위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 北 적십자 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주년 기념모임 참가자들, 10월 18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조선 직업총동맹 대표단(단장 : 김동선 부위원장), '세계 직업연맹 제17차 대회'(남아프리카) 참가 후 10월 18일 귀환(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박영기 총련 부국장), 10월 18일 평양에 도착하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단장 : 박준영 학부장), 10월 18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10.19(수)

■ 일본 정부 및 EU의 '北 인권 문제 ICC(국제 형사재판소) 회부·책임자 처벌 요구 등 UN 총회 결의안 추진'을 '北 인권 문제 국제화 추태, 인권옹호자 흉내'라고 비난 및 '과거청산' 촉구(중앙통신·노동신문/특급 인권 범죄자의 푼수 없는 추태)

■ 北 대표,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3위원회 회의(10.11, 안건: 여성 진보) 연설에서 '남한의 중국 내 북한 식당 집단 탈북·망명 종업원들 송환 및 일본의 성노예 범죄 사죄·배상' 주장(중앙통신)

10.20(목)

■ 김정은 黨 위원장, 함북 북부 피해 관련 위문 전문을 보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중앙통신)

- 쿠바 내각 수상, 라오스 주석, 시리아 대통령, 알제리 대통령, 에티오피아 대통령

■ 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국제의회동맹 제135차 총회(제네바)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0)】 前 UN 北인권 특별보고관의 '도덕적 제재' 발언 관련 '올림픽 정신과 국제사회의 공인된 원칙들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몽매한 인간, 정신병자의 궤변'이라고 비난(중앙통신)

■ 北대표,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6위원회 회의(10.14)에서 연설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해결 △'안보리'의 공정하고 책임적인 사명 수행 △미국의 '유엔사' 해체와 무력 철수 요구(중앙통신)

10.21(금)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카보베르데(아프리카 섬나라) 대통령에게 10월 19일 '재선'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 자료 게시에 대해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강탈해보려는 날강도적 흉심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독도는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 민족의 땅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어리석은 영토 강탈 야망을 버리라)

■ 우크라이나 공산당 중앙위 제1비서, '노동당 설립'(10.10) 71주년에 즈음하여 10월 10일 김정은에게 축전(중앙통신)

■ 【주요인물 동정】

-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대표단(단장 : 조한주 위원장), 직총 제7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도착(중앙통신)
- 日-朝 우호 교토네트 대표단(단장 : 쯔노가이 유다카 부회장), 10월 21일 귀국 (중앙통신·중앙방송)

10.22(토)

■ 【주요인물 동정】

- 적십자 국제위원회와 덴마크·핀란드·영국 적십자사 대표들, 北 적십자 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주년 기념모임 참가 후 10월 21일 귀국(중앙통신)

10.23(일)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2)】 美·日·韓 해상 합동 군사훈련은 '對北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지배주의적 야망의 발로, 美日韓 3각 군사동맹 현실화'라고 비난 및 '핵 무력 강화' 강조(중앙통신·중앙방송)

* 미·일·남한의 "반공화국 해상봉쇄를 노린 합동 군사연습(10.22-23)을 벌려 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인용 보도(중앙통신)

■ 美 국무부 대니얼 러셀(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발언('김정은 핵공격 능력 가질 수 있지만 바로 죽는다')을 "현 美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파산된데 혼절한 비명소리"라며 "핵공격 수단들은 발사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美 본토

핵 공격' 협박(중앙통신/절대로 과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의 남한 사드 배치 강행은 "남조선을 저들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희생물로 만들려는 기도"라고 美 백악관의 '남한에 사드 신속 배치' 답변(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요구 인터넷 청원자 10만 명 초과 공식 의무 답변)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사드 반대민심을 짓밟은 날강도적 처사)

- 조선 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단장 : 리길성 부위원장), 10월 22일 아프리카 국가들 방문차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단장 : 조성택, 김복자, 김룡원), 10월 22일 평양 출발(중앙통신·중앙방송)

10.24(월)

- 駐유엔 北 상임대표, 10월 21일 '안보리'의 對北 제재 부당성을 밝히는 '공보문' 발표 및 유엔 사무국과 駐유엔 각국 대표부·기자단에 배포(중앙통신)

- 중국 대표단(단장 :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 '北-中 국경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0월 24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10.14, 워싱턴D.C)에 대해 '미국이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틀어쥐려는 책동의 일환'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 파괴의 원흉'이라고 비난(중앙통신/군사적 패권주의의 기도)

- 유엔의 날(10.24)을 맞아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 있다'며 '유엔에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유엔은 평화 보장은 커녕 오히려 평화 파괴와 유린을 불러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더욱 도용될 것'이라고 주장(노동신문·중앙방송/유엔 개혁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 유엔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10.24),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진행(중앙통신)

- '미국 등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北)를 더는 힘으로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 사상 문화를 들이밀려고 끈질기게 책동하고 있다'며 '우리(北)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강조(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의 주역을 놀고 있는 제국주의 사상 문화)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잠비아 독립 52주년에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중앙통신·중앙방송)

- 【주요인물 동정】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수용 당 부위원장),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베트남) 참가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0월 24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10.25(화)

■ 北-中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10월 25일 평양에서 박명국(北 외무성 부상)-류진민(劉振民, 中 외교부 부부장) 등 참가 下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경관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앞으로 새로운 국경다리들을 건설하며 새 국경통과 지점들을 내오는 문제 등 토의

■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66주년 즈음 10월 25일 '우의탑'에 화환 진정(중앙통신)

- 홍선옥(최고인민회의 상임委 서기장)·강하국(보건상,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장) 및 리진군(李進軍) 주북 중국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류진민 등 中 대표단(北-中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 등 참가

* 형제산 구역, 개성시, 안주시, 회창군 등 소재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원, 열사 묘들에 화환 진정(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5)】 존 케리 美 국무장관의 '北은 불법정권' 비판은 "對北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자의 넋두리"라고 비난(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제41차 군사위원회(10.13 美 국방부) 및 韓美日 「합참」 의장 회의(10.14, 美 '합참')에 대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동원한 북침 선제공격 현실화, 3각 군사동맹을 다그치려는 전쟁모의판"이라고 비난(중앙통신·노동신문/선제공격 기도를 드러낸 위험한 전쟁모의)

■ 미국의 한국군과 해상 합동 군사연습 및 전략자산 남한 투입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조선반도 긴장격화 근원이며 세계평화의 암적 존재"라고 비난 및 '북핵 강화 대응' 위협(중앙통신·노동신문/미국은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 일본의 최신예 잠수함 '세이류'호 진수식(고베 조선소)에 대해 "해상무력 강화에서 잠수함 능력 확대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군사 활동확대 중단 및 과거청산' 촉구(중앙통신·민주조선)

■ 주북 러시아 대사(알렉산드르 마체고라)와 대사관 성원들, 北- 러 친선 고창 남새전문협동농장(천리마구역)에서 친선노동(10.25) 및 지원물자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10.26(수)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들(단장: 박영기 「총련」 부국장), 10월 25일 평양 출발(중앙통신)

■ '美, 아·태 지역 무력증강' 관련 '우리와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군사적 우세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한다'고 비난 및 '美 무력증강 저지투쟁' 선동(중앙통신·노동신문/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 실현을 위한 무분별한 무력증강 책동)

■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 대변인 중통 기자 문답(10.26)】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총회(10.15~21, 프랑스 파리)에서 '北 금융기관 폐쇄 권고 성명서' 채택 관련 '기구가 금융봉쇄망을 구축해 보려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며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중앙통신)

■ 모잠비크 대통령, 10월 17일 김정은에게 함북 북부지역 피해 관련 위문 전문(중앙통신)

10.27(목)

■ 중국 대표단(단장 :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 '北-中 국경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 후 10월 27일 귀국(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수용 당 부위원장),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 참가하기 위해 10월 26일 베트남 하노이 도착(중앙방송)

10.28(금)

■ 미국과 한국 등 '對北 제재'는 "우리(北)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날강도적 망동, 유엔 안보리의 날조품"이라고 비난하며 '한·미의 자중·자숙 경고 및 제재 지속 시 완전 초토화·종국적 멸망' 위협(중앙방송·노동신문/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진실을 해부한다)

■ 일본 정부의 '對北 추가제재 검토(북한 돕는 제3국 기업 제재 검토·北 노동자 해외파견 저지)'에 대해 "어불성설로서 가소롭기 그지없는 행위, 인권유린 범죄인 동시에 주권국가의 내정간섭"이라고 반발(중앙통신/일본반동들은 자숙하는 것이 좋다)

■ 北 노동당 중앙위, 10월 28일 제18차 공산당·노동당들 국제회의(베트남 하노이) 성과 축원 및 참가국 당 대표단·대표들에게 인사 전달(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용호(외무상), 10월 28일 체코 외무상(루보미르 자오랄렉)에게 '兩國 친선 협조관계 발전' 표명 등 '국경절' 축전(중앙통신)

* 리용호, 10월 27일 카메룬 대외관계상(르전 음벨라)에게 '열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위문 전문(중앙통신)

10.29(토)

■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제135차 총회(스위스 제네바, 10.25)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와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체육기자재들의 반입까지 가로막고 IPU 성원국 회비를 지불하는 은행 송금 결제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난(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대통령·국무장관 등의 對北 발언(엄정한 대가,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정권) 거론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다음 기 행정부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신세의 산송장들 넋두리에 불과하다'고 비난(중앙통신)

■ 김영남, 10월 29일 터키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중앙통신)

■ 北 국가 비상 재해위원회 대표단(단장: 강일섭 위원장), 재해 위험감소에 관한 아시아 상급(장관급)회의 참가차 인도 뉴델리로 출발(중앙통신)

■ 日 불교계 대표단(명예단장: '아리마 라이데이' 日 교토 불교회 이사장, 단장: '미야모토 이메이' 쇼인지 대승정(大僧正)), 10월 29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10.30(일)

■ 리수용(당 부위원장·北 노동당 대표 단장), 10월 28일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하노이) 연설에서 '공산당·노동당들의 제국주의 침략과 내정간섭·전쟁책동 저지 파탄 및 사회주의 위업 전진 위한 단결과 연대' 강조(중앙방송·중앙통신)

10.31(월)

■ 리수용(당 부위원장),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헝가리 노동당 위원장 등 각국 당수들 면담(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당 부위원장), '제18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베트남) 기간 캐나다 공산당 총비서·남아프리카 공산당 국제관계 비서·요르단 공산당 총비서 등 여러 나라 정당 인사들과 담화(중앙통신)

■ 베트남 신문 '연전' 대표단(단장 : 딩 뉴 환 부총주필), 10월 3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 불교계 대표단, 10월 31일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과학기술전당·동명왕릉 등 참관(중앙통신·중앙방송)

금월의 약사

-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46년)
- **10.02** 사회과학원, 단군릉 발굴 보고('93년) ※ 단군릉 개건 준공('94.10.11.)
- **10.03** 북한-중국 친선협회 창설('58년)
- **10.03** 민족의 날 선포('98년)
- **10.04** 당 중앙위원회 제6기 4차 전원회의 개최('81년)
- **10.05**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 개최('93년, 판문점)
- **10.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국인 투자법·합작법·외국인 기업법 채택('92년)
- **10.05**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의 개최('66년)
  ※ 경제국방 병진노선 채택, 제1차 7개년계획 3년 연장 결정
- **10.06**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03년)
- **10.0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97년)
- **10.0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관련 IOC중재 제1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85.10.8.~9, 로잔느)
- **10.09** 북한 특수공작원,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사건('83년)
  - 각료급 인사 등 17명 사망, 14명 부상
- **10.09** 전두환 대통령 서남아 순방 첫 방문지
- **10.09** 제1차 핵실험 실시('06년)
- **10.09** 당 창건 기념탑 준공, 청류다리 및 금릉2동굴 개통('95년)
- **10.09** 금속노동자절('70.4.17. 제정)
- **10.09** 국적법 제정('63년)
- **10.10** 「조선노동당」 창당('45년)
  - 조선공산당 5도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45.10.10~13,평양),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중앙조직위원회) 결성
- **10.10** 노동당 제6차 대회('80.10.10.~14.)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의
- **10.10** 조선노동당 정식 출범('49.6.30, 북로당·남로당 합당)
- **10.10** 제6차 노동당 대회 개최('80년)
  -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노동당 규약 개정
- **10.10** 조선로동당 창건('45년)
- **10.11** 남북통일 축구대회 개최('90년) - 1차전(10.11, 평양), 2차전(10.23, 서울) 진행
- **10.11** 최초 남북한 왕래 체육경기

- **10.11** 단군릉 개건 준공식('94년)
- **10.11** 남북통일 축구대회 1차전 진행('90년, 평양)
- **10.11** 단군릉 개건 준공('94년)
- **10.11** 「북조선 기자동맹」 결성('45년)
- **10.11** 단군릉 발굴 발표('93.10.2)
- **10.12** 「만경대 혁명학원」 설립('47년)
  - 혁명유가족 자녀와 당·정 고위간부 자녀만 입학이 허용되는 특수학교
- **10.12** 소련, 북한 정부 승인('48년)
- **10.12** 북-미 관계 개선 공동성명 발표('00년)
- **10.12** 북한-소련(러시아) 외교관계 수립('48년)
- **10.12** 한국-소련(러시아) 외교관계 수립('90.9.30)
- **10.1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 개최('72년)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발족에 필요한 절차 협의 해결
- **10.13**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창설('45년)
- **10.14** 「소련군 환영 평양시민 군중대회」 개최('45년) - 김일성 공식 등장
- **10.14** 방송절 ('70.10.14. 제정)
- **10.14** 김정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추대('80년)
- **10.14**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06년)
- **10.14** 대만에 무역사무소 개설('92년)
- **10.15** 방직 공업절('73.10.15. 제정)
- **10.16**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90.10.16.~19, 평양)
-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ㅌ.ㄷ)」 결성('26년)
- **10.17**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가입('74년)
- **10.18** 조선 적십자회 창립('46년)
- **10.20** 민족면역의 날('97.9.26. 제정)
- **10.20** 북한과 KEDO 간 경수로 건설 관련 훈련의정서 조인('00년, 평양)
- **10.21** 4자회담 3차 본회담 개최('98.10.21.~24, 제네바) ※ 2개 분과위 구성
- **10.21** 미국-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종료('94년, 제네바)
  ※ 북미 기본합의문 서명 발표
- **10.22** 평양-모스코바-베를린 항로 개설('87년)
- **10.22**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91.10.22.~25, 평양)
  ※ 기본합의서 명칭, 내용 구성 체계 등 합의
- **10.22**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92년, 판문점)
- **10.23** 남북통일 축구대회 2차전 진행('90년, 서울)

■ **10.23** 국토환경 보호절('96.11.27. 제정)

■ **10.23**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02년)

■ **10.25** 당 기관지 「근로자」 창간('46년)

■ **10.25**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기념일('50.10.25. 참전)

■ **10.26** 중국 인민지원군, 북한으로부터 완전 철수('58년)

■ **10.26** 국제 적십자사 연맹 가입('54년)

■ **10.27** 북-EU, 제4차 정치대화 개최('01.10.27.~29.)

※ '98년부터 매년 개최

■ **10.27**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92년)

- 남북대화 중단 등 4개 항의 결정서 채택